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68 1981년7월17일(금)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Friday, July 17. 1981

한국아마츄어 야구 미국 눌러
세계정상급 증명

(서울17일=연합) 한국대학야구팀이 제2회 한·미대학 야구선수권대회에서 미국을 다시 눌러 선수권을 차지했다. 17일 관중이 서울운동장을 꽉메운 가운데 열린 5차전경기에서 한국은 미국을 11:9로 물리침으로서 시리즈전적 4승1패를 기록,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앞으로 친선경기 2 게임을 갖는다.

한국대학팀은 이날 5차전 경기에서 2개의 홈런을 비롯한 22개안타로 미국의 강속구 투수진을 무력화, 11점을 올렸다.

미국팀은 4회초 스파이크·오웬의 2루타를 비롯한 3연타로 3:3타이를 이룬후 5회초에는 한국측의 2개 실수에 힘입어 7:3으로 리드했다.

반격에 나선 한국팀은 5회말김정수(고려대)의 2타점 2루타를 비롯, 3 안타로 3점을 올려 7:6으로 따라붙었다.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6회말, 1점을 뒤지던 한국은 박종훈(고려대)의 희생타로 7:7 타이를 이룬후 이만수(한양대)의 2루타등 연이은 안타로 10:7, 경기를 재역전 시켰다.

이후 미국대학팀은 7회초 8회초 각각 1점을 올려 10:9로 따라왔지만 8회말 한국은 이선웅(인하대)의 2루타로 1점을 추가, 쐐기를 박았다.

(해설) 한국대학야구팀의 우승이 주는 의미는 한마디로 한국야구가 본고장 미국야구를 눌렀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은 프로야구가 없는 아마추어지만 세계「톱」을 달리는 미국야구를 누르고 제2회 한·미대학 야구선수권전의 패권을 차지 한것은 한국야구가 적어도 아마추어계에서만은 세계정상급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한·미대학 야구선수권전은 이미 수차례 계속되었지만 미국이 연패하자 미국대학야구협회는 2년전 정식의 선수권전을 요청, 2회째 실시 된것이다. 작년 1회대회에는 미국이 패권을 차지 했지만 적어도 한국대학야구가 미국대학야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오래전부터 대학야구 선수권전을 갖고 있다.

근래 한국야구는 세계대회에서 여러차례 우승, 준우승등을 차지했고 징크스가 있는 일본 야구도 여러차례 눌렀다.

현재 오하이오 뉴어크에서 열리는 세계 청소년 야구대회에서도 한국고교대표팀의 맹활약이 돋보인다. 한국은 베네주엘라와 캐나다팀을 연파했다. 그러나 프로야구가 있는 미국, 일본야구의 저변은 훨씬넓다. (한국실업팀은 선수들이 소속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프로선수가 아니다)

현재 26개의 프로구단(2개는 캐나다 도시 구단)이 있는 미국야구는 한국에 보낸 대표급 대학야구팀을적어도 20개 이상 만들 수 있다. 한국선수들은 몇차례 미국의 프로시장을 두들겼지만 메이저리그에는 속하지 못하고 이원국, 박철순 선수가 2류급인 마이너·리그에서 활약중이다.

일본야구만해도 12개의 프로야구단이 존재, 한국야구와는 일단의 격차가 있다.

◇베네주웰라와의 대전에서 한국의 선동열이 역투하고있다.

한국청소년 야구팀
캐나다를 13:1로 격파

(뉴어크, 오하이오) 무패의 한국청소년 야구대표팀이 14일 캐나다를 13:1로 대패시켰다.

미국 오하이오주 뉴어크에서 거행중인 제1회 세계청소년야구대회에 참가중인 한국대표팀은 12일 베네주엘라를 6:0으로 격파했다.

한국팀의 선동열 투수는 1차전에서 베네주엘라를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았으며, 캐나다와 대전에서 6 회를 던져 3안타 무실점으로 막음으로써 15회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인경택 선수는 3안타 5타점을 기록했다.

한국팀은 결승진출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괴 절도후 잠적
신탁회사 직원 수배

토론토경찰 사기 전담반은 토론토거주 제임스·매케니를 국제경찰(인터폴)에 수배를 의뢰했다.

◇제임스·매케니

토론토에서 금을 취급하는 크라운 신탁회사사원인 매케니는 지난9일 회사 경비실에 "로얄-은행에서 금 주문이 왔다"고 말한다음, 1개 3·5온스씩의 금괴 401개를 갖고나간후 잠적했다.

은행측은 주문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매케니는 가족에갠 사우디로 간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스위스행 비행기표를 샀다. 이 금괴는 스위스 은행에서 제조, 일련번호가 있으며,총 가치는 64 7,000달러에 달한다.

매캐니는 이미 23일전여권을 신청한 것으로보아범행계획을 치밀하게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서 돈 많이 써
한국인들 평균 1,168달러

(서울16일=연합) 해외여행중인 한국인은 외국인들이 한국내에서 소비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

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79년, 80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내에서 6억9,500만달러(미화)를 썼으나 한국인들은 외국서 같은 기간 6천만달러를 더 소비했다.

한국에 온 외국인은 79년 1백여만명에서 80년에는 97만6천명으로 줄었으나 그들의 소비액은 3억2,600만달러에서 3억6,900만 달러로 늘었다.

이에 비해 외국에 나간 한국인은 79년29만6천명에서 80년 33만9천명으로 증가했으며 외국서 소비한 금액은 79년 4억5백만달러에서 80년3억9,000만달러로감소했다. 80년의 경우 한국인 1인당 외국서의 소비액은 1,168달러였다.

그러나 많은 국내인은 은행서 외환을 바꾸는 외에 암시장에서 달러를 사서감춰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 외국서 소비하는 액수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측된다.

80년 한국방문 외국인은 전년 2년보다 줄었으나 외국방문 국내인은 79년에는 전년도보다 14% 증가, 80년에는 79년보다 14.7% 가 늘었다.

라이온스클럽, 노년회에 칼라TV 기증

지난봄 차터·나잇을 가짐으로써 정식발족된 토론토라 코리안·라이온스(LIONS)클럽(회장 박영조)은 16일 하오 26인치 칼라TV 1대를 한국노년회에 기증했다. 이날 윤여경, 김병주, 서준경, 이기훈씨등 4명의 「라이온」은 TV를 노년회 정인기, 성용창, 박성교 회장단에 전하면서 "노년회원들이 애용해 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월및 6월 월례회(매주 첫 수요일)에서 노인들의 무료함을 달래게 할 TV 기증을 결의, 주머니를 털어 1천달러를 마련했다. 당시 일부에서는 "노년회에도 TV가 필요하지만 한국에는 더 가난하고 더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이곳 노인들보다 더 TV를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한「라이온」은 독지가가 비데오·카셋트를 노인회에 기증하기를 바랐다. 이를 TV에 연결하고 필름만 구하면 노인들이 한국영화를 즐길 수 있다. 자유, 지성, 국방을 모토로 한 라이온스·클럽은 이번 TV기증이 창설후 첫 봉사사업이었다. (사진은 : 왼쪽부터 노년회의 박성교, 정인기씨, 라이온 김병주, 윤여경, 이기훈, 서준경씨)

社 說 파업망국론
— 우편노조 파업의 장기화

이른바 "지상낙원" 으로 칭송되어 오던 캐나다의 "암"적 고질병인 우편파업이 또다시 전국을 휩쓸어 이 나라 신경계통(통신)을 완전마비 시킨채 보름을 넘겼어도 조속한 시일 안에 쉽게 풀릴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자연환경이 수려하며, 유용지 면적으로 세계 최대의 큰 땅을 자랑하는 복받은 나라 —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으며, 몇해전만 해도 물자 많고 실직률이 적어 대체로 생활안정이 되어있는 풍요와 자유를 구가하던 복지사회!

그런데, 이 나라를 좀먹어 멍들게 하는 권리남용 사태가 돌풍처럼 가끔씩 엄습하여 시민들을 곤경에빠뜨리곤 한다. 소위 "파업"이라는 복병(伏兵)이 그것이다.

무릇 파업이란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못할 때의 노사간(勞使間)대립현상으로 종업원들 측이 조건을 내세워 권리주장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마지막 카드인 것이다.

아마 캐나다의 파업들은 그 빈도(頻度)나 규모로 보아 세계 최고기록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파업망국」설이 파다하다.

소규모 회사나 기업체의 파업이야 일반시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큰 관심사가 못되나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관(官) 종사자들의 전면적 파업인 경우,그것은 심각한 누를 끼치며, 예리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일년중 성탄전이나 연말연시의 우편량이 가장 붐비는 시기를 노려 계절풍처럼 단행되는 우편파업을 비롯해, 항공관제사와 TTC직원, 청소부, 경찰, 간호원, 교사들의 집단파업등은 시민의 눈을 막고,발을 묶어놓을 뿐 아니라,순진한 자녀들의 공부할 기회마저 빼앗아 버리는 비양심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민주사회라 하더라도 백만인의 공익보다 내 배를 채우는 것만이 다라는 사고방식은 공무원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들 표사며 공항직원이며 TTC·우체국원들이 참으로 생존위협을 느낄 정도로 최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 당하고 있는 것인가? 크고 작은 다른 직장들과 비교해볼 때 결코 그렇지 않음을 그들 당사자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우편노조측 주장은 타부처원들의 현실과 견주어 비교해볼 때 너무 호강스러운 요구임을 정부측이나 언론계가 먼저 알고 있기에 쉽사리 응하지 않고 있는 터이며, 이곳 매스컴들이 연일 비판하고 있고, 일반시민간에도 비난의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 장기화 기미를 보이고 있는 이번 파동으로 전국의 통신망이 마비될 뿐 아니라, 대 외국 통신도 끊겨 공사간 유형·무형의 피해가 막심한 것이다.

트루도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파업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이번 파업을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과연 그들이 이나라를 다스릴 의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들은 노조안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 극단적인 노조지도자들이 물러나기를 바라는 모양인데 쥐를 잡다가 독을 깨는 어리석음 임을 왜 현명한 트루도수상은 모르는지? 다행히 14일부터 정부와 노조가 "협상하겠다"는 단순한 사항에나마 합의한 것은 장기휴회에 들어가려는 의회를 계속 붙잡아둔죠·클락 보수당 당수의 덕이었다. 의회의 노조원 직장복귀 강제 입법을 주장한 클락은 이번에 크게 국민의 신망을 받은 반면 자유당정부는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고,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다. 노조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정부는 강제로라도 직장복귀를 진작 명령했어야 했다.

정부와 국회는 우편국원, 경찰등 국민의 기본생활과 직결되는 공공단체원의 파업금지를 입법화,또는 제도화 시켜 사회를 마비시키고 국가의 이미지를 흐려뜨리는 소지(素地)를 없애는 한편, 종업원들에게 적시 승진, 또는 정기적 처우개선등의 조처도 병행해줄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p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 P 9184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HENRY)KANG
Canada Life
12년간근무중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한국일보
무료배부
—우편파업기간중—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어디로 모실까요?

모국방문 특별요금
요금 : 성인왕복 $1180+(세금) $12.50
어린이 왕복
(2~12세) $645+(세금) $6.25
출발일자 : 8월7, 14, 21, 28일
대한항공 뉴욕경유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IATA
631 A BLOOR ST. W. TORONTO,
B) 535-8801 R) 293-9970
최 동 주

특수우편 영업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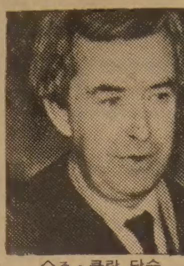
죠·클락 폭로, 부유층만 이용

(오타와)캐나다 야당인 보수당의 죠·클락 당수는 15일째 계속된 우편파업에도 불구, 캐나다우편국이일부 부유층과 대기업을위해 계속 써비스 한다고 폭로했다.

"우편국의 특수우편(Priority Post)배달 제도는중소기업과 서민층이 우편파업에 고통받는동안 부자와 권력층을 대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크락당수는 13일 의회에서 말했다.

답변에 나선 연방정부우정성 앙드레·월레장관은 "이 제도는 과거부터 우편국과 계약에의해 파업에상관없이 존재해 왔다"고 변명했다.

월레장관은 "클락의 발언은 파업노조원들이 이제도를 방해하도록 충동질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죠·클락 당수

월레장관은 파업기간동안 우편국이 특수우편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면서 이 제도는 이미 4년전에 창설, 은행, 보험회사, 생산업자, 법률사무소등과 계약에 의해 계속해 왔었다고 밝혔다.

우편파업의 최고 희생자인 중소기업들은 일주일한번씩 이제도는 이용했지만 우편국은 파업이 끝날때까지 새 계약은 안 받기로했다.

이 사설 배달원중 일부는 파업중인 우편노조원(CUPW)이 아닌 우체국직원이다.

우체국 관리에 의하면현재 약 3,000개 업체가 이 제도를 이용한다.

사용자는 이 제도를 일주일에 한번이상 이용해야된다.

요금은 일반 사설업체들과 비슷, 토론토에서 해밀톤까지 1kg에 2·20달러, 20kg은 6·95달러이며, 시내배달료 명목으로 2·50달러가 일률적으로 추가된다.

스카보로서 3위 졸업

김종완군, 수학은 1백점

◇김종완군

김종완(19·존)군은 올해 스카보로지역 19개 고교 13학년을 졸업한 3,450명 중 졸업성적 96.2로 3위를 차지했다.

윈스톤·처칠고교를 나온 김군은 1위 마틴·첸(중국계)군과 2점 차이, 2위 앨리슨·데이비스양과는 불과 1점 차이였다. 앨리슨양도 같은 윈스톤·처칠고교생이었다.

수학에 탁월한 종완군은 13학년 대수, 미적분, 함수등에서 1백점이었다. 「온타리오·스칼라(학자)」 칭호를 받은 종완군은 졸업때 1백달러를 받았다.

「온타리오·스칼라」는13학년에서 최소 6과목의 성적이 80점 이상자로서 금년 스카보로지역에서는692명이 이에 해당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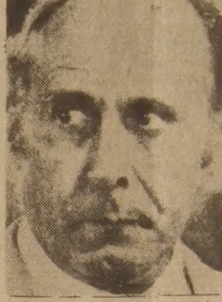
5년전 이민온 김성규씨(가제경영)의 장남인 종완군은 해밀톤의 맥마스터대학으로부터는 4년간 6천달러의 장학금과 숙소제공 제의를, 토론토대학에서는 1,200달러의 장학금 제의를 받았다.

종완군은 토론토대학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할 예정이다.

한인연합교회 학생회장을 2번 지낸 종완군은 태권도 2단이며, 학교서는 체스(Chess)클럽, 수학클럽서 활동했다.

1만여 청중 매혹

헨리·만치니 지휘



◇경음악계의 거두 만치니

세계 경음악계의 거두 「헨리·만치니」의 공연이 여름밤을 은은하게 수놓았다.

13일 온타리오·플레이스 포룸에 모인 12,000여명의 청중들은 만치니가 객원지휘하는 토론토·심포니의선율에 완전 매혹됐다. 이날 레퍼토리는 대부분 만치니의 자작곡으로 「달빛에 흐르는 강」, 「핑크·팬더」의 테마송등 영화음악들이었다.

교 민 동 정

◆백승원=한국의 유일한 통신사 「연합통신사」 외신부 차장인 백씨는 토론토 특파원으로 발령받아 지난 9일 부임했다. 백차장은 워싱톤대학 졸업후 동화통신과 합동통신 영문뉴스부 차장을 거쳤다. 풀 타임 캐나다주재 특파원으로는 최초인 백차장은 캐나다 전역에걸친 뉴스를 취재, 한국에 송고한다.

◆김부원=토론토교포 전기기사중 전기공사 면허(마스터·라이슨스)를 가진 2명중 한사람인 김씨는 킴보(Kimbo)전기회사를설립, 교포상대 전기공사를 하고있다. 김씨는 한국서 「유유산업」의 전기주임이었고, 12년전 캐나다에와서는 노바·스코셔주 발전소에서 근무, 그후 10년간 CN철도회사에서 일해왔다. 전화는255-2161.

기쁜 소리
— 한번 들리세요
444-4011을 —

여름이 오면

안 상 엽

여름이되면 문밖에 나가 불을피워 고기를굽고 음식을 나누는것은 "여가"를 즐기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중 첫째조건이라해도 과언은 아닐것 같다. 5,6개월의 긴 겨울을 지나 나머지 6개월에 봄과 여름과 가을을 맞이하는 캐나다 사람에게는 더욱 실감있게 해당되는 사실이다. 수십만개의 크고작은 호수를 품고있는 넓고넓은 땅에 아직도 3천만의 인구가 못되는 캐나다인은 아름답고 부요한 자연 속에서 마음껏 즐긴다.

여름이 오면 방학을 한 자녀들과 일터에서 휴가를얻은 부모가 같이 기쁜 여가를 갖는 유일한 계절이다. 멀리있는 친구들도 오고가며 잊어버린 정서를 되찾고, 도시인은 자동차와 기계와 생존경쟁의 아우성과 공해를 벗어나 나무와 물이 있는곳을 찾아 때묻지않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새소리 벌레소리를들으며, 밤이면 텔레비존의 "스타—워"그림을 보기보다는 하늘의 별을육안으로 바라보면서 옛꿈을 새롭게 새기게 된다.

반면에 농촌과 시골사람들은 자라나는 어린이들과함께 도시에 나와 인생의 다른삶을 보고 느끼며, 인간의 지혜로만든 문화재를 놀람으로 바라보면서 배우기도한다.

그런데 오고가는 여름길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Poison)—여름의 왕래나 피크닉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상한 음식물을 먹기 쉬우며, 북미에 만도 약 7백종류의 독풀과 나무가 있어 모르는 사이에 만지고 스치면 피부가 붉어지고, 두두러기가 솟고, 가렵고, 토하고 배가아프며, 열이 난다는 것이다. 피부에 독기가 묻었을때 지체말고 강한 비누로 씻고, "로숀"을 발라 응급치료를 하고 음식의 중독이 되었을 경우는 속히관계기관(Poison Control Centre)를 찾아야 한다.

벌과 벌레(Bees)—이에 쏘이면 B·Soda나Salvia를바르고 차게함이 좋고, 얼음을 직접 사용하면 안되며, 만일 열이 나거나, 부어 오르거나, 어지럽고 머리가아플 경우는 지체말고 속히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미와 뱀(Snak)—대체의 거미는 독이 있으며, 물리면 속히 비누와 시원한 물로 씻어야 하며, 대체의 뱀은 독이 없으나 독뱀에 물리는 것은 대체로 아랫 다리나 발, 혹은 팔과 손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위험한 지역은 긴바지나 장화를 신고, 물린 경우에 신경을 쓰거나 뛰거나, 자극적인것을 마시면 독이 온 몸에 속히 번지게 되므로 냉정하고 안정을 하면서 물린 부분을몸보다 낮게함이 좋다. 물린 부분을 차갑게 하고, 도려내거나 빨아내는것이 도움이 되며, 속히 병원으로옮겨 응급치료를 받도록 해야한다.

풀장과 보트(Pool)—물을 좋아해서 집에 풀장을 가질경우 많은 주의를 해야하며, 특별히 풀 안에서는 "플라스틱"의 컵이나 접시를 사용하고 전기와 관계된 물건은 가능하면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보트를 탈경우는 무엇보다 "안전공기주머니"를 휴대하고, 배안에서 일어서서 있거나 가장자리에만 앉아서는 안된다.

소낙비와 번개(Lights)—갑자기 번개와 소낙비를 피크닉중에 만나면 가능한대로 낮은지대를 찾고, 높은나무아래 서거나 붙잡지 말며, 배를 타거나 수영을 하는것은 매우 위험하다. 번개가 칠때 가능하면 집안에나 자동차 엔진을 끄고 문을닫고 그 안에 있으면 매우 안전하다.

모든 사고는 순간적이요, 방심하는 부주의와 준비없는 행동에서 온다. 기쁜 여름과 건강은 우리의 생활을 더욱 멋있고 가치있게 만드는 요소이다.

(토론토한인 선교교회 담임)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쵸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㉚

팔리·모왓 원작, 한재준 옮김

봄의 첫주에 수림에서나와 윈디베이 입구를 건너려고 이동해온 암사슴들은 곧 북쪽으로 없어졌고, 곧이어 한주동안은 낙오자와 새끼를 밸수없는 사슴들이 조그맣게 떼를지어 쫓아왔다. 이들은 새끼를배서 불룩한 배때문에 급한 위험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서두는법이 없었다.

늙은 암사슴과 새끼를배지않은 사슴들은 얌전하게 지나갔지만 곧이어 숫사슴들이 도착 함으로써 새로운 때로 변했다. 몇일동안은 지나가는 장소를 하도 빽빽하게 메워서 그들갈색의 등이 마치 카페트를 깔아놓은 것처럼 되어 얼음을 전혀 볼수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숫사슴들도 지금쯤 오백마일 북쪽의 평원에서 새끼를 낳고 있을 암사슴들이 지나간길을따라 우리의 캠프옆을지나갔다.

그후 몇주일동안 낙오자들이 계속 우리쪽으로 지나갔으며, 그것으로 봄의 이동은 끝이었다.

그해봄 나의눈 앞을 지나간 동물들을 아름답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막 털갈이를 시작했고 숲속을 지나는동안 나무에 비벼서 겨울털이새까만 가죽으로부터 뒤엄뒤엄 벗겨졌다. 암사슴들의 부푼배와 봄이되자 뿔이빠진 둔한 머리는 우리마음속에 사슴이라는 단어가말해주는 우아한 모습과는거리가 멀었다. 카리브는우아하지 않고 재빠른 다리를 가진 동물임에 틀림이 없다. 길고 매듭지고 밖으로 비스듬이 뻗친 다리로 황량한 대륙을 횡단할때 믿기 어려운 속력과 안전성을 갖고 있었다. 또한 그들의 행동은 더할나위없이 매력이 없었다.

암놈이나 새끼나 또한숫놈도 예외없이 하루종일 걷는동안 끊임없이 뱃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 사슴떼들이 하는 엄청난 소화의 소음이 마치 하나의 큰 소리처럼 들렸다. 뱃속에서 나는 우르렁 거리는 소리는 그들의 티티거리는 캐스타넷(타악기 일종)과 같은 발자국 소리보다 저음인데 카리브의 발목은 느슨한 연골로 되어있어서걸을때에는 물속에서 돌을서로부딪쳐서 나는 쇄쇄음이라기 보다는 쨍강하는 맑은소리의 반사음과 흡사했다.

6월말쯤해서 상처를 입었거나 병든 마지막 낙오자가 윈디베이를 지나가자 우리의 캠프 주위에는 수없는 오리떼, 갈매기, 도요새들이 몰려와서 작은 연못과 도랑을누비면서 쉴사이없이 소란을 피웠다. 그때쯤엔 눈은다 없어졌지만 사슴이 지나간 자국은 아직도 남아있었다.

얇은 도랑은 사슴의 발굽에 짖이겨져서 수에이커에 달하는 이끼가 초콜렛색갈의 진흙푸딩이되어 버렸고 긴 동면에서 깨어 잊혀졌던 태양열에 녹기 시작했다. (계속)

광고를하시기

경기가 침체할수록 광고는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나 광고비용은 절대 줄여야 합니다. 때문에 어떠한 광고 매체를 언제선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한국일보 광고부제공
광고문의 : 533-2361

감 사 말 씀

지난 7월11일 본인의 장남 성규석군과 고명애양의 결혼식을 맞아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선후배, 친지들께서 찾아 주신것에 대해서 우선 지면을 빌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편파업상 감사카드 못보내게 된것을 죄송합니다.

1981년 7월 일

성 용 창 배

TAYLOR'S QUALITY CHESTERFIELDS

낡은 소파, 의자, 자동차 시트, 각종 가구등을 다시 새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오래된 물건이라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 돈을 SAVE하는 길을 생각합시다.

536—1480
FREE PICK-UP & DELIVERY
FREE ESTIMATES

1009 DUPONT ST. TOR.
(DUPONT × DOVERCOURT)
한국일보사 알건물

低學年은 會話 高學年은 讀解力

英語교사 再教育·시청각機材보급 따라야

영어회화의 조기교육을 포함, 정부가 검토중인 「영어교육 재편방안」에대해 국내교육계는 14일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영어교사의 양성과 집중적인 현지훈련 ▲각종 시청각교재및 언어실습실의 개발보급 ▲영어평가방법의 개선등이 시급하다고말했다.

대학교수, 고교영어교사등 국내영어교육자들은 현재 중·고교 교육과정에서 실시되고있는 영어수업의 목표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가지 언어기능을 포괄하고있으나 『듣고말하는』 교사의 태부족으로 균형이 심히 깨져있다면서 우선 영어교사의 재교육과양성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국민학교에서 영어회화를 가르치는것은 언어습득의 효율상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나 전체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되며 그중 필요한 일부만을 제한해 가르쳐야할것이라고 말했다.

英語교육 각계意見

이들은 일률적인 영어조기교육은 국민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중요한 조치가될지 모른다면서 영어를 전문으로하는 기능인의 수요를위해 제한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고교영어교사들도 「저학년 회화, 고학년독해력」의 교습방식이 좋을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영어교과서의 구성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말한 이들은 교수들은 교습방법보다 평가방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객관식평가가 학생들의 『말하고 듣는』 능력을 심히 저해하고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법과 독해력만의 실력측정이 가능한 객관식평가가 계속되는한 학생들의 회화능력은 늘지 않을것이라면서 대입학력고사 각종 기말시험에서 다각적인 회화능력평가방법이 강구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教習방법 評價방법 改善시급

國校서의 教育은 일부만…專門기능인中心 養成을

英語 早期교육實施 검토

政府 教科書도 會話위주로 改編

總理室산하 특별機構설치

정부는 영어교육의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영어교육특별협의회(假稱)를 설치, 관계학자의 자문을 받아 학교교육과 성인교육을 지원, 조정키로 한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영어의 早期교육과 成人에 대한 재교육방안을 검토, 새로운 각도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讀解力위주에서 會話능력을 기를수있게 영어교과서의 개편을 검토하고 영어교육教材의 보다 立體的인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 全斗煥 대통령이 14일상오 한국외국어대학을 시찰중 語學생활관에 들러 어학실습용인 헤드·폰을 점검하고있다.

"80~90年代國際化·開放체제 맞춰 外國語의 능숙한驅使 重要"

全대통령, 外國語大 방문

全斗煥 대통령은 14일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대신 기술과 기능을갖춘 人力이 많기 때문에 80~90년대의 한국은 과감한 國際化와 開放體制의 추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이같은 국제화와 개방체제를 추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것중의 하나는 외국어의 능숙한 구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8시50분 예고없이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방문, 외국어연수원장실에서 이같이 말하고 『外大는 앞으로 외국어전문학자의 양성과 병행해서 외국어會話에 익숙해질수 있는 산외국어교육에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金東璘 총장등의 안내로 총장실, 대학원및 시청각교육원에 들러 교육내용과 학교시설을 브리핑받고 TV조정실, 제작편집실등을 살폈다.

全대통령은 이어 어학생활관을 시찰, 이집트人인 가말교수지도로 학생들이 아랍語 동시통역실습을 하고있는 모습을 살핀뒤 외국인교수들의 숙소를 둘러 봤다.

이날 시찰에는 李奎浩문교부장관이 수행했다.

社會漫評

"자…영어회화 교사나…"

議員聯 日側회장 야스이氏등 來韓

韓日議員聯盟의 日本측회장인 야스이·껜(安井謙) 前參議院의장과 우노 소오스께(宇野宗佑) 부회장, 모리 마쓰헤이(毛利松平) 간사장등 日本측간부 8명이 14일낮 12시 JAL편으로 來韓했다. 야스이회장은 이날 공항에서 기자들과만나 『스즈끼(鈴木)수상으로부터 「가능한한빠른시일안에 全斗煥 대통령을만나 韓日頂上회담을 갖고싶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부탁을받았다』고 밝히고 『나역시 빨리 頂上회담이 실현되는게 양국의 관계정상화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야스이회장은 이날 하오 3시 국회로 한국측회장인 李載瀅 民正黨대표위원을 예방, 양국의 議員교류방향을 포함한 韓日간의 현안문제에관해 의견을교환했다.

이들 일행은 이날 저녁 李회장이 新羅호텔 迎賓館에서 베푼 만찬회에 참석, 韓日의원연맹 한국측 간부들과 환담했다.

議題 계속異見

16일 總務會談서 절충

民正·民韓·국민등3黨총무들은 13일에이어 14일하오 다시 총무회담을갖고 제108회 임시국회에서 다룰議題와 의사일정에 관해 논의했으나 全斗煥 대통령의 아세안巡訪문제를 의제로 하자는 民正黨과 경제문제등을 追加, 의제를확대하자는 民韓·국민당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얻지못하고 오는16일다시만나 절충키로했다.

이날회담에서 李鍾贊 民正黨총무는 『폐회기간동안 관련常任委를열어 해당 현안문제들을 다뤘기 때문에 이번 108회 임시국회는 全斗煥 대통령의 아세안巡訪성과에 초점을맞추어 단일의제로 해야한다』면서 『정부측 보고에 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高在清 民韓, 李東鎭 국민당총무는 아세안巡訪성과뿐만아니라 물가와 민생활 보호대책등 경제문제도 의제로 삼아 정부측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해 對정부질문을 벌여야 한다는 입장만을 固守했다.

회담이 끝난후 李民正총무는 『총무들이 黨의 입장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 타결점을 찾지 못했으나 낙관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의제가 타결되지 않는이상 임시국회소집은 지연될수밖에 없을것이나 운영위를열어 의제를 타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競爭치열해질 80年代 生存위해 能動對處를"

各分野서 국민意思 結集해야

全대통령, 歸國환영리셉션서 強調

全斗煥 대통령은 13일 「국제사회의 환경이 미묘하고 경쟁이 치열한 80년대에 우리가 생존하려면 모든 지혜와 슬기를 동원,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하며, 총화단결로 각분야에서 전국민의 의사를 결집해 국가목표를 위해 전진해 나갈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저녁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중앙청에서 열린 「全대통령 내외 아세안5개국 귀국환영리셉션」에 참석, 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이번 순방을 계기로 아세안과 경제분야에서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될것으로 믿고있으며, 순방에따른 후속조치와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기업인들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 좋은결과를 가져오게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아세안과의 實利있는 협력관계 증진을 거듭강조하면서 이번 아세안巡訪을 통해 아세안5개국 지도자들과 친분을 두텁게했고 이들 지도자들과 東南亞의 안보·안정이 東北亞의 안보·안정에 중요하다는 安保觀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특히 비동맹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싱가포르등이 1·12및 6·5對北제의에 대해 적극지지, 큰 힘을 얻었다는것이 커다란 성과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이번巡訪을 통해 방문국 지도자들에게 한국을 널리 소개하고 그들의 訪韓을 초청했으며 그들이 앞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아세안 각국지도자들과의 개인적 유대는 경제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심화시켜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全대통령은 또 「아세안 국가들이 80년대를 맞아 나라마다 생존을 위해 의욕과 활기에 차있고 自國의 이익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있다는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지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자연자원이 풍부한 태평양연안의 모든국가들이 서로 협력하면 평화와자유·번영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할수있고, 따라서 위대한 태평양시대가 도래할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가는 나라마다 뜨거운환영을 받은 우리국민이 근면·성실·정직하고 예의바르며 겸손하다는 칭찬을들을때 가슴 뿌듯하고 긍지를 느꼈다」고 밝히고 『이는 현지에서 활동하고있는 공관원, 기업인, 근로자들이 그나라 국민들에게 심어준 한국민의 인상』이라고 치하했다.

이에앞서 南悳祐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全대통령께서는 우방의 지도자들에게 통치이념과 對外정책의 기본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줬으며 아세안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안보, 정치, 경제, 문화등모든분야에서 공동번영의 求心點이 될 확고한 決意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南총리는 또 『아세안순방이 태평양시대의 개막을 선도하고 새경제협력의 강화를통해 지역내의 번영과 평화를위한 굳건한 기반을 구축했을뿐 아니라 우리의 국위를 만방에 과시한 획기적 계기가됐다』고 강조했다.

"駐韓美軍 계속維持해야"

한국은 東亞·太平洋의要塞

워커美大使 上院 認准청문회서 證言

【워싱턴13日=[illegible]】 미국은 남북한의 긴장상태가 완화되지 않는한 한반도의안정을 위해 주한미지상군을그대로 유지해야 할것이라고 주한美대사로 임명된 리처드·워커씨(59)가 13일말했다.

워커대사는 상원 외교위원회의 주한대사인준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은 東아시아와태평양지역의 전선국가며, 전세계의 자유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새」라고 강조하고 한국에 부임해있는동안 한반도의 긴장 해소와안보유지공약의실현에 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

워커대사는 미국과 한국간의 무역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할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3면

韓·印문화共同委 내일부터 서울서

제2차 韓·印度문화공동위원회가 16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14일 외무부가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회의의 합의사항인 양국문화교류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교육·문화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넓히기위한 공동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회의에는 한국측에서 孔魯明 외무부정보문화국장이, 印度측에서는 밀·나스루라 교육문화성次官補와 N·K·마하잔 교육문화성부국장등이 각각 참석한다.

日 해상防衛力 증강

千km 航路帶를 검토

防衛廳장관

【東京14日=宋孝彬특파원】 오오무라(大村) 일본방위청장관은 14일 각의가 끝난뒤 기자회견을 갖고 『방위력증강계획을 국제정세에 맞춰 1천km에 이르는 해상항로帶를 방위하는선으로 수정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오무라 장관은 『해상방위는 1천km의 항로帶를 지키기위해 해상방위뿐만 아니라 항로帶의 防空까지도 포함하는 자위력을 가져야한다』고 밝혀 얼마전에 와인버거 美국방장관과 오오무라장관과의 국방회의에서 美측이 강력히 요구한 항로대의 방위력 증강요청을 수락할뜻을 비쳤다.

오오무라장관은 그방안으로 ①호위함의 항대공미사일 정비강화와 ②요격전투기의 증편 ③레이다망의 확충등으로 항공대방위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日 安保분담 합의

헤이그·소노다 "共同목표위해 긴밀協議"

【뉴욕13日=聯合】 헤이그미국무장관과 소노다(園田直) 일본외상은 13일 극동에서의 美·日양국의 군사적책임분담에 「완전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특히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양국이 공동의무를 수행해야한다는데 완전 합의했다고 말했다.

헤이그장관은 이날 상오 유엔·프라자호텔에서 소노다외상과 1시간동안 회담한후 『우리는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목표에 도달하기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고 더이상의 상세한 회담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헤이그장관보좌관들은 헤이그·소노다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증액에 관한 구체적숫자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레이건 미행정부는 일본이 극동에서의 미국의 안보부담을 경감할수 있도록 일본의 방위예산을 증액해야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소노다외상이 이날 헤이그장관과의회담에서 미국의 그같은 요구를 수락했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회담에 배석했던 미국관리들도 이를밝히길 거부했다.

平統정책諮問會議 分科위원장 會議

平和統一정책 자문회의는 14일상오 사무처 회의실에서 부의장단및 상임위원, 분과위원장 회의를열고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임받은 諮問委운영방향을 논의했다.

金溶植 前駐美대사 오늘下午 歸國

金溶植前駐美대사가 4년3개월간의 美國근무를 마치고 15일 하오7시30분귀국할 예정이다.

金前대사는 지난4일 신임駐美대사로 부임한 柳炳賢대사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업무인계를 마친후 귀국, 본부대사로 부임한다.

地平線

서부영화에서 보는 그런 권총을 六穴砲라 했었다. 탄환 6발을 재는 회전 탄창의 모양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같은 권총의 영어 원명은 「리볼버」. 「회전한다」는 「리볼브」에서 「회전하는것」―「리볼버」가된것이다. 이따금 「리볼버 권총」이란 번역을 보지만 「驛前앞」과 같은 말이라, 잘된 번역은 아니다.

▼마찬가지 「회전하는 것」중에 리볼빙·도어가 있다. 백화점이나 큰 빌딩에서 흔히 보는 회전문. 빙글빙글 도는 그 모양에서, 리볼빙·도어는 약간 정치적인 함축을 지닌 용어로도 쓰인다. 미국의 경우,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사람이 재직중에 관련됐던 분야에 종사하는 따위를 일컫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관료직을 물러나, 상사회사 사장이되는 예가흔하지만…

▼워싱턴의 리볼빙·도어가 자기네 국내를 향해 열려 있는데 대하여는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질 것이 없다. 그러나 국제정치·경제의 한 중심지라는 워싱턴의 특성으로 하여, 그 리볼빙·도어는 밖을 향해서도 크게 열려 있다. 그 회전문을 통하여, 리처드·홀브루크라는 낯익은 이름이 요며칠 우리 신문에 등장하고있다. 카터행정부의 국무성 東아시아담당 차관보란 직함을 지녔을 때는, 그가 서울을 다녀가면, 그 동정이 社說欄에까지 등장하던 인물이다.

▼그가 이번에는 우리나라 한 재벌회사의 고문직을맡기로하고 우리나라에 왔다. 워싱턴에있는 퍼블릭·스트래티지즈社―직역하면 公共戰略社― 부사장 자격이다. 동행한 사람은 국무장관 알렉산더·헤이그의 보좌관을 지냈다는 제임즈·존슨. 홀브루크 부사장은, 자기는 사업상 자문에 응할뿐 로비이스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실정을 미국정부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의회지도자에게 얘기할것이란 말을 잊지 않는다. 그에 대한 「投資가치」는 물론 그런데도 있을 것이다.

▼리볼빙·도어의 고객은 일본이 으뜸이라는 것이 워싱턴의 정평이라 한다. 일본이익의 「자문역」으로는 전 중앙정보국장 윌리엄·콜비, 포드행정부의 通商대표 윌리엄·에벌리, 전 상무성국제통상차관보 프랭크·웨일등을 꼽을수가 있으니, 가히 [illegible]이나 다름없다. 70년대초 닉슨·쇼크뒤의 현상이라지만, 카터·쇼크속에 朴東宣사건을빚었던 우리에게도 하나의 他山之石은 될 것이다. 우방을 알리고 스스로 노력할뿐아니라, 그나라 최고의 見識·經綸을 활용하는 지혜도 있음직한것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43.
은 : 온스당 US 9.35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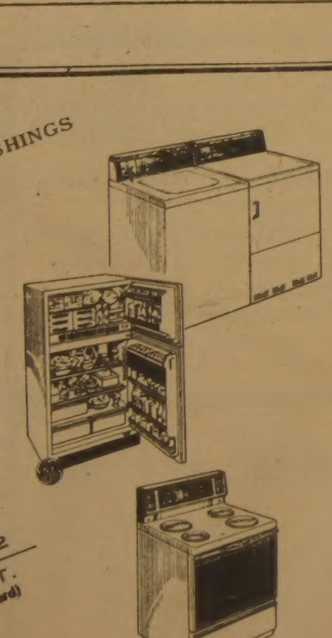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주간女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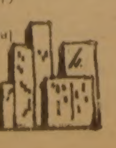
비둘기사진 식자인쇄소
고급 인쇄를 원하시면 사진식자가 있는 비둘기 인쇄소를 찾으세요.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 : 493-8894 문종대

偉信電器地毡公司
WILSON APPLIANCES & HOME FURNISHINGS
BUY NOW & SAVE!
각종 전자제품. 냉장고 세탁기, 드라이어.
박리다매를 목적으로 모든전자제품 특별세일.
593-1801, 1802
83 GERRARD ST.
(LuCliff Place · Bay & Gerrard)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REAL ESTATE BROKER
MORTGAGE BROKER
이 대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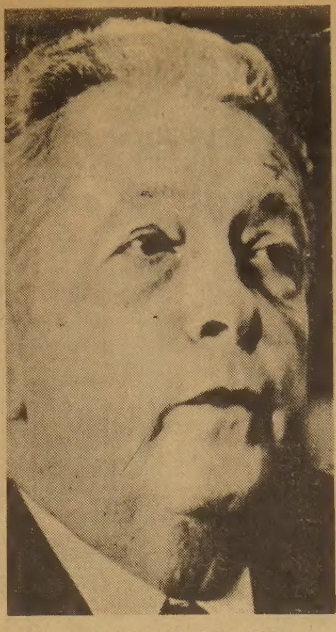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샵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주매상 $7500. 렌트 $2800. 리스21년 Asking $279,000.
다운페이맨트 $160,000
버라이어티
주매상 $7,200. 렌트 $1120. 리스3년+5년(3베드룸포함)
주매상 $5,500. 렌트 $1,300. 리스2년+5년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DRIVE IN햄버거 SHOP(3주전에 Open)
주매상 $8000. 렌트 $3000. 리스10년. Asking $269,000
다운페이맨트 $80,000(스토아 오픈시간 10시~10시)
일요일 쉬는 백화점안에 있는 Fish & Chip
주매상 $7,000. 리스6년반. 렌트 $2350+Common경비
오픈시간 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10시~6시.
일요일·공휴일은 문닫음. Asking $250,000
다운페이맨트 $120,000



세일즈맨 신 영 하 R) 423-3114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워커 新任駐韓美대사 美上院外交委청문회 답변內容

"韓半島에 緊張완화 保障없는한 美의 對韓公約 변경될理由없다"


◇워커新任駐韓美大使【AP=聯合】

다음은 레이건美 대통령으로부터 주한美대사로 임명된 리처드·워커박사가 13일 上院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인준을얻기위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註】

—하야가와의원=조금전 더론트 上院의원이 워커박사를 소개하면서 중국어, 일본어, 佛語와 獨語를 능숙하게할줄 안다고말했으나 조만간 한국말도 하게될줄로 믿는다. 한국의 全斗煥 대통령은 레이건美행정부가 발족한후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주한미군철수등 문제로 과거한때 한미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으나 그긴장은 해소되고 미국은 全斗煥 대통령과 잘 협력해 나가고있다. 한미간에 새시대가 전개된 셈이다. 워커박사는 여기서 말할 간단한 성명이라도 갖고 있는가.

▲워커=한국에 대해 갖고있는 나의 견해를 먼저 간략히 말하는것이 좋겠다. (워커는 몇장의 메모카드를 번갈아보며 말해나갔다)

나는 한국에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세계의 힘의균형과 경제, 사회적 변화의 소용돌이의 중심에 위치하고있다. 한국은 세계3대 핵국가가 만나는곳에, 3대공업국가가 만나는곳에, 또 인구면에서 세계6위안에든 여러나라들이 만나는곳에 자리잡아 지난15년간에 경제발전및 공업화가 가장빨리 이룩된 지역의 중심이 되고있다.

한국은 서태평양지역 미국의 군사동맹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미국의 견고한 우방인과 동시에 최전선에서 자유와국민들이 선택하는 정부체제를 지키는 동아시아의 방패가되고있다. 한국은 80년도에 9번째로 미국과 무역을 많이 한 국가가 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는맨먼저 全斗煥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것은 이처럼 귀중한 우방 한국과 상호신뢰를 돈독히 하기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인이 이중요한 한국에 미국대사로 임명된데에 새삼 막중한 의무감을 느끼며 본인이 아시아에 갖고있는 한국적배경과 그동안 한국인사들과맺은 우정도 있고해서 한국에서 해야할일이 반드시 생소한 것으로 생각되지는않는다.

주한美대사로서 본인은 미국의 이익과 한미관계의발전을 위해서 다음 5가지 목적을 설정한것을 밝히고싶다.

첫째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안정을다짐하는 미국공약을 분명히 한다.

둘째 비무장지대에 도사리고있는 긴장을 완화하려는 한국정부의 외교노력을 지지한다.

세째 한미양국간의 협력과 유대발전을 위해 레이건대통령이 이미 외교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동을 실천에 옮긴다.

네째 양국간의 이해와 문화교류를 증진한다. (이대목에서 곧 워싱턴서 열린는 한국미술5천년전을 뜻깊은 문화교류라고 찬양했다)

다섯째 이미 세계에 [illegible]된 한국경제발전의 향상으로 양국이 함께 이득을 보도록 한다.

—하야가와=국제간에 이해를 증진하고 대화를 믿고 가기 위해서는 안정과 민주화간에 균형이 잡혀져야 하는데 한국의 민주화가 더 한층 될 것으로 보는가.

▲워커=한국에 민주화가 발전되어 갈것으로 본다. 全斗煥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전 장군으로 있을때 그와 만난 일이 있다. 그는 DMZ가 서울서 23마일밖에안 되는 상황에서 안보의 뜻을 강조했지만 정치민주화와 관련된 발전에 관해서도 그가 생각하고 있는바를 설득력있게 말해주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한국안보를 중시한 일련의 조치로 한국은 안정되어 갈것이라는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주었다. 이것이 한국에게는 큰 자신감을 주게된 것이다. 과거 어느때보다도 한국은 81년에 많은 정치발전을 이룩하게 될것으로본다.

—하야가와=북한이 한국보다 강한 군사력을 갖게된 이유는 무엇인가.

▲워커=북한은 GNP의 21%를 군비증강에 쓰고있으나 한국은 GNP의 6%를 군사비에 할당하고있다. 북한이 한국보다 육해공군력에서 수적으로 우세하며 동원력에 있어서는 더더욱 우세하다.

—퍼시上院외교위원장=(뒤늦게참석) 레이건행정부는 한국으로부터의 신발류수입쿼터를 철폐했는데 미국신발류산업계에는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닌가. 쿼터제를 철폐하게된 근거를 무엇으로 보는가.

▲워커=한국은 9번째로 미국과 무역을 많이하는 상대국이며 兵器輸入으로는 세계에서 세번째가 네번째로 꼽히는 나라다. 한국의 對美 신발류수출은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많이 수출해온것도 아니다. 한국은 점점더 소비지향사회로 발전해갈 전망이어서 앞으로 좋은 미국시장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퍼시=북한의남침을 막기위한 미군주둔의 상징적 중요성을 어떻게보는가.

▲워커=상징성은 국제정치에서 어떤경우에도 중요성을 지닌다. 상징성은 신뢰도로 뒷받침되어야한다. 上院인준을 얻으면 주한美대사가 될 나에게,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중요한것은 힘이며 상징성보다도 신뢰도가 더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적대국들이 어떤일을 저지르게될지 예측이 서지않고 우방국들에 대해서는 예측이 선다고 할수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거꾸로 적대국에대해서는 예측이 서나 우방국들에대해서는 예측할수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한반도에 긴장완화가 보장되고 비무장지대에 긴장이 점차 축소된다는 보장이 없이 한국에대한 미국의 전략적 공약이 변경되고 아시아 일선에 자리잡은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兩國간 交流증진에 기여 現정부 民主化발전 確信

"駐韓美軍의 상징성을 信賴度로 뒷받침"

【워싱턴14日=書淳煥특파원】

韓·日간 신뢰회복이 急先務

—스노베 前駐韓 일본大使연설

◇스노베

【東京13日=宋孝彬특파원】 외무성 사무차관으로 내정된 스노베 前주한일대사는 13일 하오6시30분 국제문제공동연구소(소장 金山政英)에서 최근 한국정세에 관해 강연, 『영원한 이웃인 한·일양국은 무엇보다도 신뢰관계를 회복하는것이 첫째의 외교지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스노베씨는 앞으로의 한일간의 현안으로 ①안전보장문제에 대한 인식의 일치 ②경제협력문제 ③학자와 새로운 세대간의 인적및 문화교류문제가 등장할것이며 한일외교는 내림에서 협조의 무대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요지는 다음과같다.

10·26사건이후 한국국민은 냉철한 자세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갔다. 朴정권의 업적은 절대적인 빈곤을 해소하고 「하면된다」는 자신감을 국민에게 안겼다. 그러나 유신체제가 지나쳐도 제동할수없는 장치인데 반해 全斗煥체제는 헌법등에 대통령단임제를 규정하는등 제동장치가 돼있다.

全체제의 특성은 ①한국세대에의한 혁신성과 ②불타는 내셔널리즘의 고양 ②정치의 안정 ③북과의 대결에서의 우월성 견지에있다.

군사적으로 이북보다 우월한 입장에 서려는데 있으나 한국은 언제나 대화의 길을 모색하고있으며 全대통령의 6·5제의는 정치적제스처가 아니라 본심에서 우러나온것으로 생각한다.

全대통령의 아세안순방은 자원외교와 시장개척을 위한 것이었으나 비동맹외교의 강화에도 목적이 있다. 한국은 중공및 소련과 관계개선을 모색하고있다. 한국은 북괴보다 외교적 우위를 견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있는데 반해 일본이 북괴와의 교류를 넓히는 것은 한일우호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군내부분열과 학생데모에 대해 묻는 사람이 많으나 全정권은 기본적으로 안정돼있으며 상대적인 불안정요소가 다소 있다.

한국의 당면과제는 경제문제다. 한국은 남북분단에의한 방위비의 과중한부담과 인플레로 고심하고 있다. 경제문제가 등장하면 자연히 對日무역적자와 일본의 자금협력및 기술이전문제, 국제적수평산업조정문제가 제기될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우여곡절은 있겠으나 한국경제는 중·장기로 비춰볼때 70년대처럼 고도성장을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착실한 성장은 계속할 것이다.

일본국민은 한 일간의 문제를 다룰때 과거의 잘못을 뉘우쳐야한다. 한국사람은 아직도 쓰라렸던 과거역사를 생생히 가슴속에 지니고있다는것을 일본사람은 잊어서는 안된다.

波共黨, 지도층 直接선출

특별黨大會 東歐共産黨 史上최초

政治·經濟개혁 具體化

카니아 黨제1書記 再選확실

◇캄問題 숙의하는 헤이그와 駐유엔 美大使
알렉산더·헤이그 국무장관이 14일 유엔 캄보디아 국제회의 참석에 앞서 커크패트리크 駐UN美國대사와 전략을 숙의하고있는 모습. 【유엔본부 14日 UPI=聯合】

【바르샤바13日AP AP=聯合】 폴란드공산당은 14일 민주화 개혁에대한 소련의 거센 제동이 미치고 있는 가운데 동구공산당사상 최초로 당지도층을 민주적방식으로 직접선출하고 국가의 정치·경제개혁작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특별 공산당대회를 개막했다.

이에 앞서 폴란드현지도층은 13일 헨리크·야블로스키 국가평의회의장(대통령)에게 에드바르트·기에레크 전 공산당 제1서기를비롯한 전직당및 정부최고위 지도자12명에대한 모든 국가훈장등 영예를 박탈할것을 요청했다.

폴란드공산당기관지 트리부나·루두紙 편집장 비스와프·베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대표들은 이번특별당대회에서 당제1서기를 포함한 당지도층을 직접 선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스타니스와프·카니아현당제1서기가 민주적방식에 의해 반선하는 최초의 당제1서기에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식소식통들은 이번 당대회에서 『누구든지 원하는대로 어떤 인물이든 선출할수 있다』고 전제, 당대회는 당정책을 취합해 나갈『최고회의 상임간부회』를 새로 구성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이 최고회의상임간부회 의장에는 카니아와 가까운 관계이며 중도파인물인 카지미르즈·바르치코프스키나 한때 강경파였으나최근 중도파로 기울어진 스테판·올조보스키가 선출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改革단행않으면 波共黨붕괴"

知識人단체 DIP報告書

【바르샤바13日AP=聯合】 지난해여름이래 국가적위기를겪고있는 폴란드는 14일개막되는 제9차 공산당전당대회가 급격한 개혁을 단행하지않을경우 공산당의 붕괴등 「대재난」을 당하게될지 모른다고 폴란드의 지식인단체 「경험과 미래」(DIP)가 13일 전망했다.

「非同盟·중립政府」촉구

캄問題 국제회의

베트남軍 즉각 撤收도

【뉴욕13日UPI韓=聯合】 캄보디아 회의에참석한 각국대표들은 13일 기조연설을통해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의 철수와 평화적 방법에 의한 비동맹 中立 캄보디아정부수립을 촉구했다.

소련과 베트남등 주요 공산국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번회의는 개막과 동시에 빌리발트·파르 오스트리아외상을 의장으로 선출한후 『인나반도에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고도의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줄것』을 호소한 쿠르트·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의 개막연설로 1주일간의 회의일정에 들어갔다.

이자리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석상에 등단한 미국무장관은 20만캄보디아주둔 베트남군의 즉각적인철수를 촉구하면서 특히 베트남을 지지하고있는 소련이 캄보디아분쟁해결에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헤이그장관은 또 미국이 캄보디아를 강점하고 동남아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베트남과 절대로 외교관계를정상화할의사가없다고못박았다.

또 아세안(東南亞국가연합)의장직을 맡고있는 수피아·다나발란 싱가포르외상은 기조연설에서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은 용납할수없으므로『우리는 모든 反베트남 저항운동에 지지를 보낸다』면서 캄보디아주둔 베트남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자유·독립·중립 캄보디아의 건설을 촉구했다.

중공측 대표로 참석한 중공부외상 韓念龍도 캄보디아주둔 베트남군의 철수를 주장하면서 베트남군이 철수한후 미·소·중공·영·불등 5개국과 베트남·아세안등이 캄보디아의 중립·비동맹상태유지에 적극 협력할것을 촉구했다.

東南亞 緊張부채질 베트남, 캄會議비난

【뉴욕·프라하13日AP AP=聯合】 베트남軍기관지 꾸안·도이·난·단은 유엔캄보디아회의가 크메르·루지 前캄보디아정권의 대학살범죄를 두둔하는 소수집단의 모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싱가포르副首相, 캄問題언급 "軍事的해결불가피"

【싱가포르13日韓=聯合】 베트남이 캄보디아에관한 뉴욕국제회의에서 제시될 정치적해결안을 거부할 경우 캄보디아 문제는 군사적수단을 통해 해결될것이라고 신나탐비·라자라트남 싱가포르제2부수상이 12일 말했다.

暴動확산에 強硬策

英 대처逢變, 準軍事장비 投入검토

【런던14日韓UPI=聯合】 영국정부는 13일 흑백청년들의 폭동이 일층 확대되자 북아일랜드의 구교폭동 진압에 사용되고있는 장갑차와 플래스틱 탄환등 준군사장비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경찰측에 보다 강경한 진압조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대처수상은 이날 리버풀을 예고없이 방문, 폭도들에 의해 심하게 파괴된 일부지역을 시찰했는데 대처수상의 방탄승용차가 이지역을 통과할때 시위군중들은 썩은 토마토와 휴지뭉치를 승용차에 내던지기도 했다. 대처 수상은 시찰을 끝낸후 지난 10일간은 자신의 집권이래 최악의 시기였다고 토로했다.

화이틀로내상은 이날 폭동사태와 관련, 런던경시청에 폭동사고에관한 속보센터를 설립했으며 분쟁지역에 경찰병력을 신속히 투입하기위한 조처들이 취해졌다고 말하고 체포된 폭도들을 수감하기위해 군병영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있다고 말했다.

◇미스코리아와 미스日本
뉴욕미스유니버스 선발대회에 참가중인 미스코리아 李恩定양(오른쪽)과 미스日本 오리사꾸·미네건양(왼쪽)이 13일 메이시 백화점을 방문, 여성의류 코너에 마련된 마네킹옆에서 포즈를취하고있다. 【뉴욕14日UPI韓=聯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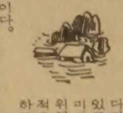
메아리

주말인 11일과 12일 중부및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로 10명이 사망·실종하는 인명피해를 포함하여 1천2백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재산손실만도 줄잡아 18억원에 이르렀다. 가장 비가 많이 왔던 진도에서는 강우량이 3백20㎜였고 다음이 충남홍성의 2백90㎜였으니 말이 비가 온것이지 실지로는 동이물을 거꾸로 부은거나 다름 없었을 것이다.

이런 폭우의 기습으로 소양댐도 건설된지 8년 8개월되는 13일 상오 최고수위인 1백92.3m에 이르러 5개의 수문중 3개를 열어 인공폭포의 장관을 이루었다.

높이 1백85m의 수로에 초당9백여톤의 물이 곤두박질해서 쏟아져 오색이 영롱한 물보라를 일으키는 광경은 장관이었으나 소양댐과 함께 청평과 팔당댐도 연쇄적으로 수문을 여는통에 한강변에는 홍수주의보를 내려야하게되었다. 그 아니라도 지리한 장마로 나라안이 물바다가 되다시피 한데 중앙관상대에서는 오는 17일부터 다시 큰비가 내릴것이라니 예로부터 일러오는 하늘 밑이 빠졌다는 말이 연상될정도이다.

물바다



우리가 해마다 장마때문에 연중행사처럼 수해를 겪어오며 반만년을 시름과한숨으로 살아오고 있는것도 물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데 큰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 산의 나무는 근지 차츰 입산이 무성해가고 있어 다행한 일이나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국내각처에 다목적 댐을하나씩하나씩 늘려나가야 할때가 된것이다.

한가지 목적만을 위한 진용댐의 경우는 채산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목적들을아울린다면 경제성을 충족시킬수가 있고 또 20세기 전반부터 미개발지역의 경제성장을 돕기위해서 많은 공공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댐을 건설하고 있는것이 세계의 실정이다.

당장에는 예산상의 무리가 수반하더라도 각지역의 특성에 따라 아스댐, 록필댐, 中實石工重力댐, 中實石工아치댐, 중력형아치댐, 구조헌石工댐등을 건설해서 먼저 홍수와 한해가 해마다 표티를 이루는 피로움을 물리치고 물을 우리 생활을 위해 종합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다스려야 하겠다.

海外토픽

첫 軍事퍼레이드 ☆佛, 大革命기념行事로

프랑스는 14일 프랑스혁명(바스티유 감옥습격)제1백92주년기념일을 맞아 파리등 8개주요도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군대행진이 벌어지는등 전례없이 열띤 경축분위기일색.

미테랑 대통령은 지방분권화추진방침에 따라 혁명기념행사마저도 전국적으로 거행하도록 조치했는데 기념일전야부터 전국 각도시의 시민들이 길거리로 몰려나와 춤을추고 술을 마시면서 기쁨을 만끽.

정부는 군·민간의 친밀감을 북돋우기위해 13일 7개도시에서 군대의 시가행진을 가진후 14일 파리에서도 미테랑 대통령이 참관하는 가운데 대대적인 군대행진을 벌일계획.

파리에서 벌어질 군대행진에는 6천6백명의 병사들이 참여, 개선문으로부터 상젤리제가로 행진할예정인데 기마병 2백80명과 군차량2백80대 그리고 제트전투기 헬리콥터등도 동원될 것이라고. 【파리=AP】

生殖器값2천만원 ★屍體잘라판 人間白丁

아프리카의 코트디브와르에서는 최근 공동묘지를 전전하면서 매장된 시체의 심장·혀·생식기등을 마구잘라내 성도착자들에게 팔아 짭짤한 수입을 올려오던 회대의 인간백정시체도굴 범들이 체포,구속됐다고.

말리 기니 오트볼타에서원정온 이들 시체도굴범들은묘지법위반및 시체유기죄로 각각10~2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데 한범인은생식기 한개를 2만8천달러(한화 1천9백60만원)에 팔았다고 말했으며 또다른한 범인은 잘라낸 5개의장기로 6만달러 (한화4천2백 만원)를 벌었다는것. 【아비장=AP】

승리자가 新婦차지 ★판다곰 사랑은 [illegible]

일단의 중공및 해외과학자들은 四川省에있는 臥龍팬더보호 지역에서 젠젠이라는 이름의 10살짜리 암팬더와 이 암팬더를 차지하기위해 90분간의 격렬한『전투』를 벌인끝에 승리를거둔 수팬더가 즐기는 야성의 교미과정을직접 목격했었다고 光明日報가 보도.

光明日報에 따르면 이들학자들은 中共정부와 세계야생동물기금이 공동으로 팬더보호사업을 추진중인 臥龍지구에가 이 희귀한 팬더곰의 보호방안을 연구하던중 최근 무선송신장치를 목에달아 놓은 젠젠의 이상한소리를 듣고 달려가보니 두마리의 거대한 수팬더가 상대편에 아무런상처도 입히지않은채 으르렁거리면서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더라는것.

싸움은 약 90분간 계속된후 끝이나고 승리를거둔 수팬더는 승리의 기쁨에넘쳐목청껏 포효한후 젠젠과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더라고 光明日報는 공개. 【北京=AP】

오늘의 小史 <15일>

▲네덜란드화가렘브란트출생 (1606)
▲韓國軍작전지휘권, 유엔총사령관에 이양 (1950)
▲美, 駐韓美軍의 核무기화 착수발표 (1957)
▲이라크新政府, 아랍연방 해체를 선언 (1958)
▲美마리너 4號 火星근접 촬영성공 (1964)
▲中學입시제 폐지 (1968)
▲잠수교 개통 (1976)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6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김용순무용연구소

동 부(SCARBOROUGH)
장소 : 한인회관대강당(20 MOBILE DR.)
시간 : 수요일 : 5시~7시30분
토요일 : 10시30분~3시까지
서 부 (MISSISSAUGA)
장소 : Burnhamthorpe Community Center Lounge "C"(1500 Gulleden Dr) (Burnhamthorpe & Dixie)
시간 : 금 : 6시~7시30, 7시30~9시까지
중 부(DOWN TOWN)
장소 : Western Y. M. C. A(15 Robina Ave. (on St. Clair)
시간 : 화 : 5시~6시30분 학생반
7시~8 : 30분 주부특별교실
문의전화 : 751-8891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타 제작
페인팅, 타 일
669-5784
MR. 심

아세아한약방

● 진품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 보제첩약및 각종 병에 대한 처방약
● 특수 한약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678 BLOOR ST. W.
☎ : 530-0522 조 지 섭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 밤1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랑이과 세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서 울 식 품

I.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I.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건강관리의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일체에 대한 하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정통침구의학회 정수인 사암오행, 침구전공)
주소 : 92 Bram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 : 439-6717 김 남 집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여보…식탁으로 오세요…저녁 다됐어요"

郡마다 納骨堂설치

保社部지시 개인墓地억제 平墳권장

전국 각시(市)와 군(郡)단위로 최소한 1개소이상의 화장장과 납골당이 생긴다.

보사부는 14일 화장확대유도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각 시·도별로 10개년동안의 연차계획을 세워 1개소 이상의 화장장과 필요한수의 납골당을 설치해 나가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보사부가 묘지제도의 합리적운용을 위해 마련한 「묘지등의 설치및 관리운용지침」은 ▲화장의 확대유도를 제1우선으로 하고, 매장을 위한 묘지설치에 있어서는 ▲묘지의 집단화와 ▲개체식으로 가족등 시차합장이 가능한 평분(平墳)형 분묘설치를 적극권장할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해 개인묘지는 가급적 억제키로 했다.

이지침은 앞으로 묘지의 조성과함께 공설묘지및 법인묘지의 적정한 배치, 합리적 운영·관리로 묘지의 집단화 기반을 조성토록하고 이를위해 각시·도지사는 지역별로 묘지등의 수급계획을 별도로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설치허가는 같은 본묘안에 집단으로 납골하는 납골묘지나 평분형 묘지를 설치하는 법인묘지를 우선적으로 허가토록하고 개인묘지는 원칙적으로 억제하도록 규정하고있다.

홍콩·臺灣·比 승객 콜레라 感染을조사

보사부는 14일 홍콩, 대만, 필리핀등 콜레라 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하는 사람은 콜레라증상이 없더라도 해당 시·군보건소에 인적사항을 통보, 보건소 책임아래 입국 5일후 감염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려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보사부가 콜레라방역을 위해 마련한 오염지역경유 국자(내·외국인)특별검역지침에 의하면 외국인의 경우 관광회사안내원, 호텔등 관계자, 국내초청자등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내국인의 경우는 경유지, 인적사항등을 적은 건강카드 2장을 작성, 공항검역소에서 1장은 보관하고 1장은 해당 시·군보건소에 직송, 5일후 감염여부를 판정, 최종보고토록 하고있다.

● 北韓뉴스 ●

對北傀 옹호宣傳 中共 人民日報

中共의 人民日報는 11일 과거 中共과 北傀사이의 전투적 친선이 「장기간의 시련을 겪어왔으나 최근들어서는 쌍방간의 협조관계가 다방면에 걸쳐 폭넓게발전하고 있다고 주장, 文革운동을 거쳐 毛澤東의 퇴진으로 불어닥친 中共내부의 변천을 둘러싼 불편하고 서먹했던 방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왔음을 암시했다.

中共의 이신문은 이날 北傀와의 「우호협조및 상호원조조약」(군사동맹) 20돌관련한 기념사설에서 최근들어 쌍방간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서로지원하며 정치·경제·군사·문화등 다방면에 걸쳐 상호협조가 「폭넓게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혁신에 대해 쌍방인민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고말했다.

中共의 이신문은 이어 반도정세에도 언급, 韓國은 北傀가 내놓은 일련의 「방안」들을 「신중히 고려」해야한다는 北傀를 두둔하는가운데 韓國측의 유엔동시가입 주장을 「그릇된 입장」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駐韓美軍철수 주장도 되풀이했다.

中共의 이같은 對北傀 「유대강화」필요성강조는 최근 中共의 實用主義노선 선포를 계기로 對中蘇관계에서 미묘한 입장에 처해있는 北傀를의식, 北傀의 對蘇편향을 억제해보겠다는 포석에서 비롯된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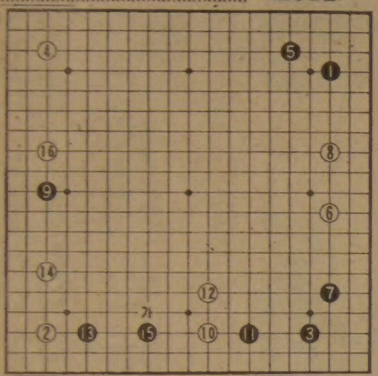
蘇무역대표 北韓에

【서울=桃】

蘇聯·北傀간의 81~85년도 상품상호공급협정이 12일 平壤에서 조인됐다고 北傀방송들이 13일 보도했다.

第12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3局 第1譜 1~16 (각5시간 덤5집반)



白(挑戰者)徐奉洙〈1勝1敗〉
黑(名人)曺薰鉉〈1勝1敗〉

曺·徐의 대결은 유독 名人戰에서 국한의 상황이 벌어져 일진일퇴로 불꽃을 튀긴다. 이번 시리즈만해도, 이제까지 일방적스코어인데 반하여 도전자가 白으로 첫판을 이기더니 곧이어 名人이 一鉄을 가하여 1대1 타이를 만들어 만천의 팬들을 한껏 열광시키게 되었다.

5판승부가 3판으로 압축된·상황에서는 쌍방이 커다란고비를 맞이한 셈. 그러나 전례로보아 쫓는쪽과 쫓기는쪽은 우선 마음가짐에서 현격한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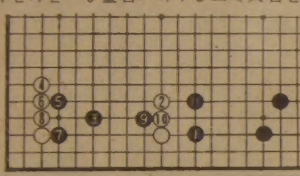
그렇다면 名人이 좀유리하다 볼수있지만 徐白勝이 버릇처럼된 요즘인 까닭에 과연어찌될는지속단키어렵다.

名人은 필승의 결의를 黑1、5와 3、7의 小目귀 굳힘으로 나타내고 도전자는 제1국처럼 兩3三。어쩐지 양쪽이 실리위주로 지구전을 펼 것만 같다.

5판승부가 3판승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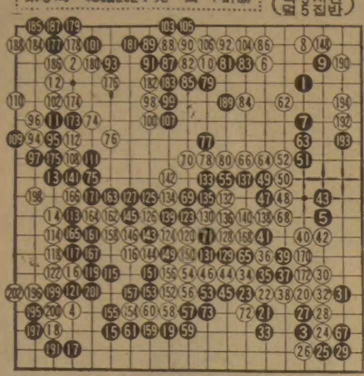
白8까지는 현趙治勳名人이 大竹英雄에 대한 도전 제5국에서 두었던것과 똑같다. (日本名人·棋聖戰 第5局 참조)

지금은 白10부터 변했지만 黑12는 우측黑이 강하므로 「가」에 지킬 자리라는 국후 평이다. 白16까지도 일본 名人戰과 비슷한데 그것은 참고도와같이 진행되었다고 일본에서는 이 바둑과 대조적이어 흥미를 끌고 있었다. 【一凡】



第12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3局 總譜202手完 白 不計勝 (각5시간 덤5집반)



白(名人)曺薰鉉〈1勝1敗〉
黑(挑戰者)徐奉洙〈1勝1敗〉

작년말께부터 도전자가 名人에게서 연속 3개타이틀을 쟁취했을때는 거의가 일방적스코어, 심하게말하면 팬들의 실망과 의아를 살만큼 싱거운싸움이었다.

그러나 유독 名人戰만은 항상 曺·徐의 진수가 유감없이 발휘되어 만천하팬들을 열광시켜 왔다. 이번시리즈 역시 마찬가지로 도전자가 우선 1승을 올리는가하면 곧이어 名人이 1승. 그것도 피차간 白으로 이긴데서 말할수없는 드릴을 느끼는것이다. 그리고 제1국에서 名人이 초반에 대착각을 범하여 고전에빠졌듯이 제2국인 이 바둑도 도전자가 초반에 과격한수를 두는바람에 때이르게 열세를 초래한 일은 한말로해서 아이로니컬한 것이었다.

그 초반의 黑의과수는 다름아닌 우하귀의 35.

드디어 1勝1敗

제1국에서 名人이 그러했듯이 승리를 서두른면에서 똑같은 과오를 도전자도 범했다고 생각할수 있다. 黑35로 곱게 45자리에 뻗어둘 마음의 여유가 아쉬웠던 것이다.

초전에 열세란 으레 치명적인것. 도전자가 서둘러 黑79、81의 승부수를 던진것은 그래도 다행한 일이었다. 언제나 그렇듯 역경에서 오히려 힘을발휘하는것이 도전자, 徐奉洙의 참모습인 것이다.

과연 이같은 파괴작전은 보기좋게 주효하여 형세 역전인가 했는데 黑93을 100자리에 두지않은것이 의문이었고 또 白94이하의 맹공이 黑115、5록으로 비화했을때 白126、128의 심장부일격이하 140까지 名人의 솜씨가 절묘하여 아래쪽黑이 잡혀 승부가 결정되었다. 실로 黑의 통한의 패배였다. 147…126. 160…149. 169…36. 소비시간 白=3·25. 黑=3·38. 【一凡】

터론토서 받은 歡迎

나의 이력서

〈題字·玄信圭〉

玄信圭 ⑧②

사람들에게는 가끔 뜻하지않던 행운이 찾아오기도한다. 75년 내게 그러한 의외가 있었다. 그해엔 마침 FAO의 어떤 요청을 거절한 참이었다. 어떤 요청이란 2년동안 브라질의 입목육종 사업을 지도해 달라는 것이었다. 브라질은 지구상에서 원시림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나라이면서 조림해야할 미개발지가 많았고 특히 원시림의 벌채에 앞서서 입목육종의 기반을 다져놔야 했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見聞도 넓히고 외국을 위해 봉사할 기회도 되어 해볼만한일이었고 봉급도 월 2천5백달러씩으로 조건도 좋아 관심을가져봤다. 그러나 내나라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2년씩이나 외국에 나가 있다는게 어리석게 느껴졌다. 결국 FAO의 초빙을 사절했다. 그런데 그해가 다가는 12월에 FAO본부가 있는 로마로부터 喜報가 날아왔다. 국제포플러위원회의 집행위원으로 피선되었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도 60년포플러협회가 창립되었고 72년포플러위원회로 개편, 국제포플러위원회에 가입했으며 당시 회원국은 31개국이었다. 한국이 가입된후 처음 열리는 국제회의였으나 우리대표는 가지못했는데 로마주재 농무관 姜仁熙씨 (현농수산부차관)가 대리대표로참석하여 31개회원국이 전원 입후보한 가운데 나서도 9명을 뽑는 집행위원속에 나의 이름을 올려놓았던 것이다. 현장不在당선이란 어느 회의에서나 쉬운일이 아닌데도 姜씨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회의는 5년만인 80년 터키의 이즈밀에서 다시 열렸다. 내가 참석한 회의여서 그랬는지 집행위원 개선에서 다시 뽑혔다. 어찌 내개인의 聲價때문이겠는가. 우리나라의 포플러육종과 조림업적이 그만한 수준에 올라있고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음에서이다. 터키회의에서는 또 한국의 포플러실력이 과시되어 동양선 처음으로 오는9월 日本京都에서 열리는 IUFRO대회가 끝난후 40여명의 대규모 포플러 재배 시찰단이 한국에 온다.

農大출신 대거出迎…스승보람 만끽

◇농대도서관에서 筆者의 맏子婦와 함께。필자가 정년퇴임 하면서 기증한 도서들이 뒤로보인다。

포플러라면 한국도 세계조림국대열의 앞줄에 서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위원피선은 뜻밖이긴해도 결코 우연의 명예는 아니라 믿고있다. 「포플러한국」의 징표로 받아들이고 싶다.

로마의 낭보를 듣던 그해 8월에 가본 캐나다는 내게 즐겁고 씁쓸한 두가지 회상이 남아있는나라다. 밴쿠버에서 열린 13차 태평양학술회에 참석하러 캐나다에 첫발을들여놨다. 하늘을 찌르는 기개로 뻗어오른 美松은 캐나다의 자랑이기도하다. 누가 봐도 부럽고 탐이 날만했다. 어느핸가 그곳 대사한분이 그 美松을 탐낸 나머지 10만그루의 묘목을 비행기편으로 보내왔다. 그 묘목은 고위층의 지시가 붙어 육종연구소로 실려왔다. 우리연구진들은 당황했다. 이미 시험해본결과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과 미리 상의를했더라면 그같은 일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많은 묘목을 월동시키느라 무진 애를 먹었고 각지에서 식재 실험을 했으나 결국은 허사였다. 벌써 캐나다와 한국사이에는 기후의 타이프가 달랐다. 그곳은 추운 겨울에 비가오고 이곳은 여름에 비가온다.

「포플러 한국」實力과시…國際委執行위원으로

나무란 아무데서나 자라는 식물이라고만 알았을뿐 임업이 기술이고 과학이란 사실까지는 몰랐던 탓이다. 이일이 씁쓸한 회상이다.

갔던길에 육종연구소의 주파박사를 만나러 터론토로 날았다.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나는 내생애 최상의 환영을 받았다.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농대출업생 20여명이 출영을 나왔다. 전혀 뜻밖의, 그것도 외지에서 맞는 환영은 최고의 기쁨이 아닐수 없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사흘을 어울렸다. 편안했고 후련했다.

농과출신 朴수영군은 대학에서 배운대로 「한국농원」을 차려 신품종벼도 실험하면서 채소농사를 짓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한국인의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자못 의기에 차있었다. 의지굳건한 젊은이들이 기특하게도 한국의 얼을 심고 그것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이것이 캐나다에서 맛본 즐거움이다. 훈장이란 바로 이런 재미가 있고 이재미 하나만으로도 훈장을 할만한 가치가 있을것이라 여긴다.

모순투성이의 生 <145>

[연작]

趙善作 禹慶熙畵

그림자 놀이 54

『어떻게할까?』하고, 노영지는 조금 생각하는 눈치더니 잠시 후에 말했다.

『마치 그게 누군가 알고 있는 것 같은 태도였어요. 그래서 전 그가 언닐 보았던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어요. 언니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그가 언니를 보았을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내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이상한 반응을 보일밖에요. 그 남자와 어떻게 만났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고 버럭버럭 화까지 내며 추궁하다가, 이런 말을 해도 언니한테 실례가 안될는지 모르겠네요. 그 동거자는 처음에서부터 우릴 미행한 거라느니, 그여자 좀 싸이코한 여자니까 어쩌어째 알게 되었더라도 친히는 사귀지 말라느니 이상한 말도 막 하고… 암튼 그 사람이야 말로 좀 싸이코해진게 아닌가 싶을정도였어요』

『그래? 싸이코한 여자래?』

나는 씁쓸히 웃으며 말했다. 노영지에게 체크당한 어제밤부터 나는 얼마나 허탈해 그르렁거렸는지도 모른다고 염려했었으며 염려했던대로 된 것이다. 자포자기의 느낌으로 내가 말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서울에서부터 미행한 처음 사람이니까』

노영지는 좀 어리둥절해진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그러다가 한참만에 비명처럼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된 거지 전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럴거야. 여긴 좀 답답하군. 우리 어디 딴 데보러갈까?』

『이거 마시고요』

나와 코피 잔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노영지가 말했고, 그녀는 제 앞에 놓인 식은코피를 얼른 마셨다.

이제 그는 노영지에게 더 이상의 속임수는 쓸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가 노영지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 놓기 전에 내가 먼저 그녀에게 내 처지와 입장을 이해시켜야 하며, 가능하면 그녀를 동지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 것이다.

다방을 나와서 노영지와 나는 창경원 쪽을 향해 걸었다. 차도에는 성급하게도 벌써 헤드라이트를 켠 자동차들이 줄지어 달렸고, 저만큼 입체파차로의 우람한 모습이 거무스름하게 드러나 있었다. 보도는 비교적 한가했다. 나는 얼핏 눈에 띈 근처의 잡화상으로 들어가 [illegible] 따위를 샀다. 그런 나를 의아스럽게 바라보는 노영지를 돌아보며 내가 말했다.

『창경원에 들어가 이거먹으며 얘기좀 하면 좋겠지?』

별이 좋겠다는 듯이 노영지는 싱긋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앞에서는 의문에 대한 성급한 갈증이 무방비상태로 드러나 있었으며, 그녀의 그런 모습은 내게 큰 부담이 되었다. 비록 그녀에게 가면을 벗기는 행동이어도 그것을 어디까지 벗어야 하는가, 그리고 인격이 훼손되는 범위는 어디까지로 해야 하며, 그가 같은사이 그의 앞에 나란히 놓였다면 멀만은 과연 이해시킬수 있는가, 또 내가 그에게서 얻어내고자 하는 결혼의 완성이나, [illegible]의 생활따위에 관해서는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가, 그런 경험에 관해서 나는 적지 않은 혼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어두움이 드리우기시작한 창경원은 한요했다. 우리는 산입구에서 그리 멀지 않는 산책로 가의 벤치에 자리를 잡았다. 수은등 하나가 눈 앞에서 점점 빛을 더해가고 있을뿐 둘레가 모두 깊은 숲이었다.

깡통 하나를 노영지에게 건네며 내가 입을 열었다.

『그날밤 난 그 사람을 가지러 갔었어』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모순투성이의 生 <147>

趙善作 禹慶熙畵

그림자 놀이 56

갑작스럽게 노영지가 들추어번 기억은 내자존심을 몹시 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녀를 동지로 끌어들이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나는 그녀에게 화를 낼수가 없었다. 그런데 불쑥 내뱉은 자신의 말이 지나쳤다고 생각했는지 노영지가 먼저 사과를했다.

『미안해요, 언니. 그때 그분이 만약 언니였다면 학질을 떼고 오는 길이라느니 한 그 사람 말이 얼마나 파렴치한 것이겠어요? 그래서… 봄이었어요. 정릉에 그가 단골로 빌려 쓰는 방갈로가 있어요. 말이 방갈로지 산에서 나무해다 불을 때는, 온돌방 하나에 부엌 하나, 너저분하고 좁고만 재래식 집이에요. 그래도 글을쓰기에는 괜찮은 모양이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니까. 산 속에 있는 독립가옥이니까 찾아오는사람도 전화도 신문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산장의 주인은 오백미터쯤 밑에 사는데 그런 방갈로가 너댓채 되는 모양예요. 그래도 숲 속에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몰라요』

노영지는 아마 그런데서 그를 기다렸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모양이었다. 깊은 밤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그러나 나는 또다시 그의옆에 나란히 눕는다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관자놀이의 혈관이 뛰기시작한것이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깊은산속의 방갈로. 얼마나 그럴듯한 장소인가. 그곳의 정확한 위치를 묻고싶어 나는 저절로 입이 벌어질 지경이었다. 그러나 노영지에게 더이상 싸이코한 여자로 보여서는 안된다는 자각이 그런 충동을 억눌렀다.

『거기서 기다렸단 말이지? 뭐 무서웠겠어?』

충동을 누르고 나는 간신히 노영지를 거들었다.

기가 막힌다는듯이 머리를 저으며 노영지가 말했다.

『아홉시가 넘어서는 정말 견딜수가 없어서 밑에있는 주인집으로 내려왔어요. 일곱시에 오겠다던 사람이 열두시가 다 돼서 온거예요. 그리고는 옛날에 좀 알던 여자가 나타나서 학질을떼고 온다나요? 그때도 싸이코하다는 말을 썼어요. 육년인가 칠년만에 만났는데 좀 싸이코해진 것 같다고. 출판사로 전화가 걸려와서 시간이 없다고 했더니 서너 시간이나 출판사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섰다가, 저녁 먹으러 식당에 가니까 거기까지 따라왔다나요?』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나에 관한 이야기였다. 처음 그를 찾아나섰을 때의 일들, 실패의 기억들이 내게 또렷하게 떠올랐다. 오전에 내가 전화를 걸기 시작해서, 밤 늦은 시간 우리집 근처의 골목길에서 그가 택시로 빠르게 달아나기까지 일련의 기억들을 나는 재빨리 반추(反芻)했다. 무엇하나 상쾌한 기억은 없었다. 더구나 그는 육년만에 만난 나를 제삼자에게 아주 가볍게 싸이코해진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이마를 조금 찌푸리며 내가 말했다.

『우리 다른 얘기 할까? 미스 노는 정릉 그 방갈로를 언제 처음 갔었어?』

『처음 얘길하자면 우스워요』

노영지는 조금 웃고 나서 『듣고 싶으세요?』하고 물었다.

『듣고 싶은데』

『처음에는 납치당했달까, 그랬어요. 우리들의 의사와는 반대였으니까』

『우리들?』

『네. 네명 이었어요. 남자들까지 합치면 여덟명이죠. 혜정이는 아니고, 유미라는 애가 끼었어요』

모순투성이의 生 <148>

趙善作 禹慶熙畵

그림자놀이 57

『아, 전에 말한…』

나는 혜정이를 도우려고 함께 선물을 받았다는 노영지의 친구 중에 유미라는 이름이 끼어 있었던 것을 상기했다.

『네. 그런데 취업하기 전부터 그런 데는 이차라는 묘한 것이 있다고 우린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술꾼들에게 이차라면 술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걸 뜻하잖아요? 삼차 사차도 다 그런 뜻으로 쓰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함께 자는 것을 뜻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취업하면서 경영주 측에게 이차에는 응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신분도 신분이고요. 합의가 돼서 취업을 한 거죠. 그런데 그날 밤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술자리가 끝나가는데 마담언니가 전화왔다고 불러내더니, 그런데서는 손님방에 들어간 아이들을 불러내려면 흔히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어둑어둑한 복도에서 오늘 밤에는 체면을 좀 세워 달라는거에요. 이차에 응해 달라는거죠. 유미와 난 절대로 그럴수 없다고 버티었어요. 그건 이미 약속된 사항 아니냐고요. 그런데 마담은 회유 반 협박 반으로 일단 자동차에 타기까지만 이라도 해라, 그러면 마담 쪽의 체면은 세워진다, 그다음 어딘가에 도착해서 도망치든가 그러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도망치면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미하고 나는 서로 새끼 손가락까지 걸면서 꼭 도망치자고, 약속하고 따라나섰죠. 나가시차 두 대에… 일본말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영업을 하는 자가용차를 거기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아무튼 차 두대에 여덟사람이 나누어 타고 달려간 곳은 정릉 산골짜기에 있는 바로 그 방갈로 주인집이었어요. 시내는 그렇지 않았는데 발 밑에는 눈까지 밝히고, 어둠속에서도 나무 가지 사이로 부는 바람이 쌩쌩 을씨년스럽고, 무척 추웠어요. 유미하고 나는 턱을 덜덜 맞추며 손을 잡고 떨고 있었어요. 도망칠 생각은 엄두도 못내고. 시내 어디 호텔이었다면 쉬웠을 텐데 너무 어둡고, 또 우릴 태우고 온 승용차 두대가 떠나버리니까 차편도없고 막막한 느낌이었어요. 그래 내가 너 도망칠거니, 하고 유미한테 자신없이 물었더니 유미는 단호하게, 그럼. 한 이삼십 분만 걸어내려가면 동네가 나와. 마음약하게 먹으면 안돼. 그러잖아요. 남자들을 따라 일단 방갈로까지는 갔어요. 방갈로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파트너끼리 초입에서 헤어졌죠』

거기까지 노영지는 단숨에 이야기했다. 너무 빨리, 게다가 현실감이 흘러 넘치는 어조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드문드문 의문나는 점이 있어도 나는 쉽게 참견할수가 없었다. 한데, 비로소 나는 노영지의 말에 끼어들 여유를 얻은 것이다.

『영지의 파트너는 그사람이었구?』

『그럼요』

당연하지 않느냐는 표정으로 영지가 말했고, 내가 다시 물었다.

『그때가 처음이었나? 파트너가 된거』

『아니죠. 그전에 한번 파트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럼 말야. 그이한테 뭔가 이끌리는 점같은 건 없었을까. 그냥 단순히 손님대 아가씨, 그랬어? 이를테면, 그가 소설가라는 유별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것 정도는 알았을텐데』

『그럼요. 그런 거야 처음 보자마자 알았죠. 속된 말로 쪽이 팔렸다고 하잖아요. 물론 친근감이야 들었죠. 한민일씨죠, 뭐었도 읽고 무엇도 읽고 무엇은 영화도 보았다고 했더니, 입맛이 쓴 표정을 짓더군요. 술맛 떨어지게 됐다고…』

한국 식품점 경영주께 감사합니다

우편파업 기간중 한국일보를 무료배부 하시느라고 더위에 수고가 많으시겠읍니다.

폐사는 현재 발행부수를 증가했읍니다. 파업기간중 언제라도 신문이 떨어지면 전화 해주십시요.

(533-2361~4)

식품점 경영주 여러분 우리 서로도와 지루한 우편파업을 슬기롭게 넘깁시다. 신문픽업차 들리시는 교포들을 따뜻히 맞아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저희 신문사는 여러분의 아이디아도 항상 환영합니다.

식품점 경영주 제위께 지면을 빌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 한 국 일 보 —

평화식품

카나다 시장에서 호평받는
한국인의 식품공장

생산품목
두부, 우동
편육, 떡쌀가루
콩나물, 콩우유
떡복이, 떡국가래

PYUNG HWA
FOOD CO. INC.

☎ 534-0237 이시댁, 구자선

단신 文斗植 安世桓 맹활약

三一實高、培材눌러 67—65

長身의센터 朴贊美 두각

善一女高、恩光꺾고 準決에

全國 고교농구

제13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남녀 고교농구대회 3일째 1회전경기가 14일 장충체육관에서 속행、남고부서 水原三一實高는 후반文斗植、安世桓등 단신선수들의 활약에힘입어 培材高를 67—65로 격파、준준결승에나갔다。한편 여고부서 善一女高는 센터 李美子가 부상으로 결장한자리를 朴贊淑의 동생朴贊美（1학년）로 메웠으며 센터로출전한 朴의활약으로 恩光女高를 65—54로 누르고 역시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이날 三一과 培材의 대전에서 三一은 전반 숏이 불안한데다 패스마저 미스가 잦아 일방적인 열세에 몰렸다。培材는 金泰鳳 邊秉吉의 숏이 호조를 보여 일방적인 우세를 보이며 전반을 36—26、5골이나 앞섰다。

그러나 후반 三一이 리바운드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게임의 양상은 완전히 뒤바꼈다。

三一은 權官熙의 숏이 불을뿜고 文斗植 安世桓등 단신선수들이 게임을 풀어나감에따라 과감한 드라이브·인을 성공시켰다。이후 三一은 맹렬한 추격전을전개、文斗植의 숏으로 48—48 첫타이를 만든후 安世桓이 역전골을터뜨렸다。

培材는 비숫한 신장이면서도 리바운드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고 체력마저 떨어져 67—65로 분패했다。

◇제3일 1회전

▲남고부

수원삼일 67 (26-36 / 41-29) 65 배재고교

▲여고부

선일여고 65 (33-28 / 32-26) 54 은광여고

◇猛烈 드라이브인 숏 培材高 金泰鳳이 골밑에서 드라이브인、숏을 시도하자、앞에서 마크하던 三一實高 金益俊이 뒤로 넘어지고 있다。

日本서3連勝 國民銀여자농구

日本 臺灣 싱가포르를 원정중인 國民銀行여자농구팀은 첫방문국인 日本에서 가진 3차례의 대전서 전승을 거두었다

海外硏修 문넓어지자 「大學生 出國」줄이어

하루 百50명~2百명 떠나

"外國을 배우자" 美로…파리로

몰지각 일부學生 免稅店 양담배부터
贊反엇갈린 가운데 「쇼핑觀光」걱정도

◇단기해외연수를위해 金浦공항을 빠져나가는 남녀 대학생들。여름방학과 함께 하루평균 1백50명에서 2백명까지 몰리고있다。

모든사람들이 주의깊게 지켜보는 가운데 단기해외연수길에 나서는 남녀 대학생들이 떼를지어 金浦공항을 떠나기 시작했다。찬·반양론이 엇갈리는가운데 조심스럽게 열린 대학생들의 이같은 출국러시는 장기적으로 보아 바람직한 사회의 투자이지만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이 선인흉내를 내「쇼핑관광」이나 하고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안기고 있는게 사실이다。

金浦공항에서 유심히 지켜보면 대뜸 면세점에 달려가 양담배부터 사피우는 학생도 있고 외제만년필이나 시계부터 사는 학생까지보여 시작부터 눈쌀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없는게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대감과 그나름의 포부를가지고 떠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이들 학생들은「위화감」의 염려속에서 사회가기대하고 견문을 넓히기와 어학습득을 제대로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기대와 걱정이뒤따르는 가운데 공항에는 젊은 출국대열이 계속 줄짓고 있다。

올들어 처음실시되는 이단기해외연수는 여름방학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열려 지난주말2백50여명이 출국한 것을 비롯、14일현재 하루평균 1백50명에서 2백여명이 떠나고 있다。

문교부추계에 따르면 겨울방학까지 합해 4천여명의대학생들이 해외연수를 계획하고있어 선발대의 해외연수여행이 단순한 관광여행이되느냐、아니냐가 관심이 아닐수 없다。

대학생들의 해외연수는 동남아를 제외한 歐美 선진국에한하며 21일에서 한달까지로 제한돼있다

13일에도 S영어사가 모집한 영어회화반14명이 NWA편으로 뉴욕을향해 떠났고 이어 한미친선협회가 모집한 1백24명이 이날밤 로스앤젤레스로 떠났으며 이에 앞서 지난11일 한미친선협회가 모집한 1백20명、慶熙大가 모집한 40여명이 미국으로 떠났다。弘益大 미술대학생 40명도 인솔교사 4명을 따라 파리로 향했다。

弘益大 미대생들처럼 교수인솔로 전공과 관련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영어회화를 익히기 위해 알선단체의 주선으로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등 미국의 대도시로 내닫리고있다。

한미친선협회가 주선한 학생들은 4백명으로 모두 현지 미국인 가정에 1개월간 민박시키면서 영어를 익히게 하고있다。

아버지가 마련해준 2백여만원으로 해외연수를 가는金모양(20·S여대2년)은『부모의권유로 간다』며 유학이라도떠나듯 사뭇 흥분된표정이었다。또 미국 와그너대학기숙사에서 주24시간씩 영어회화를 공부할계획이라는 한여학생은 회화공부가 단기에 효과를 볼것같으냐는 질문에『뉴욕에 갔다오면 전공인 디자인공부에 도움이 되지않겠느냐』고 말했다。

출국하는 대학생들은 무엇을 구경하고 오겠느냐는 질문에 한결같이『구경가는게 아니다。공부하러간다』고말하고 있지만 출국수속을마친 학생중 면세판매점으로 몰려가 아직 셈이 익숙치못한 달러화를 내고 양담배를 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서슴없이 1백달러 지폐를 내놓고 시계를 사끼는학생이 있는가하면 몽블랑 만년필을 사갖고 들어올수 있느냐고직원에게 묻는 학생도있었다。

S대 공대 토목과 4학년 金모군(22)은『솔직이 말해 미국구경을 갑니다。한달동안 영어회화공부란 어림없는 얘기죠。솔직하게 미국이란 나라를 잘 구경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1인당 여행비가 항공료와 체재비만도 최소 1백60만원에서 2백만원이 필요한데 개인용돈까지 합치면 3백여만원은 마련해야한다。

해외연수를 떠나는 동료를 전송나온 郭모군(22·모대학경제과4년)은『처음 대학생에게 해외여행을 허락한다는 발표가 나왔을때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친한 친구가 간다는말을듣고 갑자기 자신의처지를 비교하게 됐다』고 말하며 대부분 대학생들이 학창생활동안은 경제력의 차이에서오는 열등감을 느끼지못하는데『해외여행개방으로문제가 제기되는것같다』고 말했다。

金모군(21·S대2년)은『현재로는 4학기분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여비를 갑자기 마련할수 있는 학생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별문제가없으나 앞으로 여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문제가 생기지않겠느냐』고걱정한다。

장기적으로 대학생들의 해외여행은 대다수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현재로선 부유한 학생들의 유람정도로 보는 눈길이 많다。

徐모양(20·K대2년)은『친구의 여행이 단순한관광으로 끝난게아니라는것을 입증하기위해 방학이 끝난후영어회화실력을 겨뤄보자고 격려해 보냈지만 기분은 착잡하다』고 털어 놓았다。【金善宗기자】

알프스登攀隊희생자永訣式

同僚·유가족 5백여명 嗚咽

알프스 아이거봉 북벽 등반도중 낙뢰를맞고 숨진 한국알프스등반대 申建浩대장(29·仁荷大산악부OB)과 朱東圭대원(25·漢陽大응미과3년)의 영결식이 14일 상오11시 漢陽大병원 뒤뜰에서 있었다。(사진)

한국대학산악연맹(회장李永均)이 마련한 이날 영결식에는 숨진 두대원과함께 알프스등반에 나섰다 13일 되돌아온 呂松弼부대장등 대원 4명과 유가족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례위원장인 李永均씨는 조사를통해『뜻을 이루지못하고 산화한 두산악인은 등반수준과 인격수양면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산악인들에게 귀감이 됐었는데 30세를 다 채우지못하고 우리곁을 떠나다니 슬픈마음을 가눌길이 없다』고 애도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中共-臺灣 첫對決

加靑少年소프트볼

【에드먼턴13日AP=聯合】49년中共정권수립이후 최초의 中共과 臺灣의 직접적인 스포츠대결에서 中共이 승리를 거두었다。

中共은 지난11일 서부캐나다의 에드먼턴에서 벌어진 세계청소년 소프트볼선수권대회、여자부경기에서 臺灣을 7—3으로 제압했다。

救助隊 3명도窒息死 全義광업소

갱엔 有毒가스 가득、모두 넷死亡

【大田=聯合】14일새벽2시께 충남燕岐郡全東面陽谷里소재 금광인 全義광업소(대표·鄭熙慶)지하9m 수직갱안에서 광부 郭준용씨(55)가 숨져있는것을 동료광부 崔하돈(40)·金성보(39)·金영봉씨등 3명이 구출하려다가 모두 유독가스에 질식、숨졌다。

이날 사고는 후반근무자인 崔하돈·金성보씨등 2명이 교대근무를 하기위해 새벽2

주간女性 두꺼비 안의섭

流星의 賦 <131>

李炳注作 李友範畵

亡兆의 日月 ⑰

선조가 등극한지도 어언16년。총명한 군주이긴 했어도 별반 치적은 없었다。나이가 더함에 따라 호색(好色)의 도가 심해지고 경연(經筵)에 결석하는 빈도가 잦았다。

당파의 싸움은 이미 고황(膏肓)에 들어 국사는 날로 어지럽게만 되어갔다。

『임금께서 영단(英斷)이없으니 나라가 이꼴이다』하는 말이 동서양당(東西兩黨)사이에 퍼졌다。동인(東人)들은 그들이 배격하는 서인(西人)들을 즉각 갈아치우지 않는다고해서 불평하는 말이었고 서인들은 동인들을 많이 발탁 등용한다고하여 불평하는 소리였다。

계미년 1월 이조판서 이이가 출사하여 임금을 만나 아뢰었다。

『신의 건강이 순조롭지 않아 중책을 감당할 수가 없사옵니다。물러 서게 해 주옵소서』

『안되오』

하고 임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각하면 걱정이 한 두가지가 아니오。이럴때 경이 조정을 떠난다니 될 말 이나 하오。오늘은 내가 특히 경에게 부탁할 일이 있소』

임금은 한동안 묵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라의 병력이 말이 아니오。실로 전조(前朝)에 비해서도 형편이 없소。태평 세월이 백년이나 지났으니 병정(兵政)이 해이해질만도 하지만 북방(北方)에 호(胡)의 동정이 수상하고 남방에 왜의 동정이 이상하오。병정의 문란을 일찍부터 걱정하고 있었지만 사람을 얻지 못해 차일피일 천연해왔소。그런데 믿을만한 사람은 경 밖엔 없구료。경이 서둘러 병정(兵政)을 개혁하여 주어야 겠소。경이 기특한 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모든 폐단을 없애고 양병(養兵)의 규모를 만들면 국가의 다행이 될것이 아니겠소』

이이는 하두 간곡한 임금의 말에 사양할 수도 없게 되었다。

『신의 성력을다해 하교를 받들겠사옵니다』

하고 부복했다。

선조의 예감은 사실이되어 나타났다。그해의 2월7일에 북병사 이제신(北兵使 李濟臣)이 호(胡)의 추장 이탕개(尼湯介)가 국경지대에 침입하여 노략질을 한다는 사실을 급보(急報)했다。이에 앞서 나라에서는 이탕개가 육진(六鎭)을 마음대로 드나든다는 소식을 듣고 관직과 녹봉을 주는등 후한 대접을해서 무마했었는데 진(鎭)의 장수가 최근 그를 홀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삼아 행패를 부리게 된것이다。

이탕개는 우을기내(于乙其乃)、율보리(栗甫里) 등의 동민들과 합세하여 처들어왔는데 경원부사 김수(慶源府使 金燧)는 이와 맞서 싸우다가 이윽고 패하고말았다。이탕개는 승세를 몰고 아산(阿山) 안원(安原) 등의 진보(鎭堡)를 점령했다。

임금은 삼정승과 의논하여 오운(吳沄) 박선(朴宣)등을 조방장(助防將)으로 임명하여 병사 8천명을 거느리고 선발시키곤 정언신(鄭彦信)을 도순찰사(都巡察使)에、이용(李戙)을 남병사(南兵使)에、김우서(金禹瑞)를 방어사에 임명하는 한편 경원부사 김수와 판관 양사의(判官 梁思毅)를 진앞에서 목 베어 달아 군율(軍律)을 과시하도록 하였다。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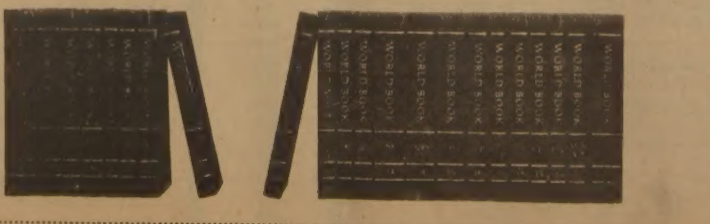
밴드 · 가수 · 무용단 매일 공연함.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World Book-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 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 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 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533-2363 (9시~4시) 769-4366(저녁7시이후)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지렁이 잡이구함(유경험자에 한함)
최고가격 1000마리당 25달러
☎ : 255—0730

좋은 농장, 좋은 골프장.
최고대우 1000마리당 25달러
☎ : 532—3637 미스타 계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 531—0474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 533—0910 피터

입주하셔서 베이비 씨터 하실분 구함
☎ : 763—7450 미세스 김

재봉사 구함 (남·여)
• 약간명 • 유경험자 • 좋은 대우
• 핸드백 만드는일
인터뷰 원하시는 분은
CALL 251—2543 AVIS

여름철 낚시미끼용 미모사, 지렁이
거머리등 세일.
LIGHTS밧테리
(2 DZ 지렁이를 사면, 1 DZ지렁이 Free)
630 QUEEN ST. E.
☎ : 463—4997

남녀 초저녁 청소하실분
☎ : 977—1110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풀, 파트타임
☎ : 742—0800 미스타 차

주말에 가게에서 일할
학생 헬퍼 구함
☎ : 267—4770

집안일 돌보실 독신녀 원함
ST. CLAIR & AVENUE RD. 에 위치
아파트+봉급 줌. 부엌일 없고 영어 필요없음.
CALL ☎ : 481—1355

일본 식당에서 웨이트레스 구합니다
CALL MANAGER(오후3시~6시 연락)
☎ : 977—9519
MASA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매매및 양도

벡커매매
년매상 $300,000이상+로타리오
☎ : 783—1984 김 대 성

스토아 급매 :
주매상 4천8백불, 권리금 3만3천
☎ : 423—9899

그로서리 스토어 급매 : (코너스토어)
주매상 1만2천이상, 가격19만 달러
161 WITHROW AVE.(AT LOGAN) 토론토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61 MAIN ST. 편의한 문의는 직접 내방 바람.
☎ : 694—7848

빌딩과 비즈네스 매매
다운타운 지역
☎ : 368—5980, 633—0529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이주관계상
매매코자 함. 2 베드룸 달려 있음
☎ : 259—8139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 $275
☎ : 635—1038

가게 급매 : 주매상 $4,500, 윗층에 3베드룸 있음
가장 적당한 OFFER자에게 양도코자 함
☎ : 531—1067

HAMBURGER PLACE FOR SALE
중심가에 위치, 긴 기간의 리스 완전 장비됨
큰 주차장이 있음, 주매상 $6,500
☎ : 741—9170 MRS. WOO A. E. LEPAGE

그로서리가게및 건물급매 :
2층 벽돌건물이며 경쟁이 없고 장래성이 많은
좋은 위치에 있음.
모게지 1st. 9.5%, 2nd 12.5%
458 CALEDONIA RD. ☎ : 781—7080

그로서리 및 야채가게 매매 :
주매상 $7,000~$8,000(5일영업)
리스 4½년+5년 옵션, 렌트 $1,200(2500sq. 피트)
자본이 있고 경험있으면 더 높은 이윤및 매상가능
☎ : 368—1917

성업중인 BAKERY 매매
TOTAL PRICE $130,000 7만달러 다운페이
CASH원함
1603 CLARKSON RD. MISSI.(오후 내방)
7시 까지 미스타 김

FIRE PIT햄버거 식당
주매상 8천불~만불, 가격27만불, 리스20년,
렌트 천7백불 현찰13만불 요함. 순이익8천불
☎ : 1—705—748—9722 피터보로
미스타 김 또는 미스타 리

고급 BEDROOM SET급매 :
경대, 옷장, 2 NIGHT테불(QUEEN SIZE) 침대.
G. E. 냉장고, 커텐, 전축등 급매
☎ : 769—4366(오후5시이후)

CONVENIANCE STORE IN BUSY PLAZA
(ST. CLAIR E. X 버치마운트)
ASKING $69,000, 리스8년6개월, 주매상 6,500이상
HELLENIC REALTY
☎ : 766—2020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 몬트리올 100% 영어지역
BEER, WINE, CIDER, 유럽피안, 캐네디안 그로서리
취급 주매상 $3700, 주6½일 OPEN, 렌트 $375,
12년(리스+옵션), ASKING $29500+스탁
연락처 : 1—514—484—2071(몬트리올)
530—1012(토론토)

FISH & CHIPS스토아 매매
오랫동안 잘 경영해온 비즈네스 매매코자 합니다
(가게+현대형 아파트)
모개지가 좋고 비지네스 시작하자 곧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읍니다. 파는 사람이 새로운 경영자를
위해 도움을 줄것입니다.
관심있으신분 연락 바랍니다.
☎ : 751—7333
GOHEEN REALTY LTD., REALTOR

콘도미니엄 매매
2 베드룸+큰 리빙룸및 부엌 $57,000(협의가능)
냉장고, 스토브, 디쉬워셔.
HWY 427×RATHBURN 오후6시이후
☎ : 622—7162 미스타 리

포터블) 세탁기 2년
액설런트 콘디숀 드라이어 6개월사용) 497—9180

미 용

로마노 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커트, 파마 전문. 9시~오후8시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힐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타일 • 하드우드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스트리핑 & 왁스)

식 당

KOREA HOUSE
* 즉석불고기 전문
666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 TEL. 536-8666

大 生 園
짬뽕, 각종만두, 두부탕, 닭튀김, 왕새우 볶음,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볶은밥, SEA FOOD.
월~목 11 : 30AM~1 : 00AM, 화 : CLOSE
금, 토 10 : 30AM~2 : 00AM, 일 2 : 00PM~12 : 00PM
☎ : 929—5048, 961—3539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박 종 남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MINIT TUNE : 주정부 지정 차량검사장
①TUNE UP, ②BRAKE검사무료, ③각종차수리일체
☎ : 782—6311 이 태 경(793 Spadina Rd. at Eglinton)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식품점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정기휴일 : 일요일
배달도 가능 합니다.

꽃 집

크로스웨이(구 글래이터)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855, (R) 757—0905 남파·김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 생화, 조화, PLANTS * 꽃꽂이, 생일, GIFT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학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 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시설및 수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TV출장수리
☎ : 431—0102 MR. 박

전기시설·보수 : 각종냉동기 에어콘
CANKO ELECTRIC CO. 270—3118 오 현 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타 제작
페인팅, 타 일
669—5784 MR. 심

자동차, 유리, 실내장치
MOON'S AUTO TRIM & GLASS LTD.
☎ : 638—0656(B), 493—7185(R)
정 해 문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438—3795 김 영 호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조 혜 숙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16)
아동복(신생아—16)
항상 저렴한 가격
월~토(오전10시~7시) 일(오후3시~7시)
706 BLOOR ST. W. ☎ : 534—2003

曺薰鉉 名人 2連覇
徐奉洙7단에 劇的半집勝
本社주최 挑戰5番棋4局

【浦項=姜大衡기자】曺薰鉉名人(28)이 라이벌 徐奉洙7단(28)의 추격을 따돌리고 名人位를 방어, 2연패에 성공했다。

曺薰鉉名人은 11일 浦項市 浦項종합제철 靑松臺에서 열린 한국일보社제정 제12기 名人戰도전 5번기 제4국에서 도전자 徐奉洙7단에 극적인 반집승을 거두어 토틀스코어 3대1로 名人位를 지켰다。

이날상오10시 개막된 제4국은 執白의 曺名人이 黑을 든 徐7단의 黑1·3·5 3連星에 맞서 白2소목、白4화점으로 포석을 전개했다。

국면은 중반을 넘어서면서 黑이 두터움을 유지、그대로 종반에 이르는듯했으나 白98로부터 치열한 패싸움이 벌어져 패를 들어 벌때마다 대세가 뒤바뀌는혼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바둑이 2백여수에 이르자 黑의 우세로 대세가 기울었는데 勢不利를느낀 曺名人이 白2백28수로 승부수를 던져 이것이 성공、3백12수만에 계가결과 黑이 반면으로 5집을 남겼으나 덤5호반을 공제、결국 曺名人이 아슬아슬한 반집승으로 名人位를 방어했다。

「이것이 北韓」
홍보책자 各校배포

문공부는 북한의 실상을 다룬「이것이 北韓」이라는 홍보책자 20만부를 제작, 13일 初·中·高校와 대학에 송청적으로 배포했다。

홍보책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南北통일방안、북한의 [illegible] 실상을 설명하고 소위「고려연방공화국」통일방안의 [illegible]을 [illegible]하고 있다。

亞洲柔道 개막
印尼서 10개국參加

【자카르타14日聯合】제4회 아시아유도 선수권대회가 한국등 1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5일 자카르타에서 개막됐다。

한국일보 詩壇

花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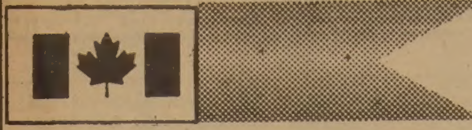
朴珍淑

기진한 6月의 가슴파울
꽃씨는 날아오고 있네
바람 속에 각시처럼 팔을 두르고
아주 추운 곳에서 나들이 오듯
지금

窓 밖에 원편 날리는 山寺의 환호들은
잊힐 수 없이 잊혀져 간
그 사랑의 눈길이 아닐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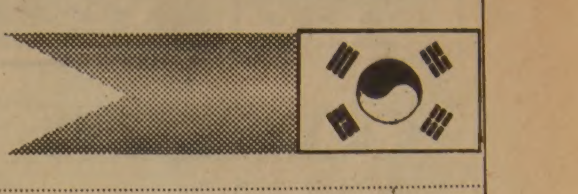
잠목을 떠나
공중에 흩어지는 저 울음 속을
그 날의 이별로써 牡丹이 지는데
들꽃 속을 가는 黃나비의 빛살에서나
사랑은 다시 피어나기를
햇빛 찬란한 동리 어귀 느티나무께
마음이 꽃씨같은
꽃들이 지나는 곳。

제1회 전카나다 한국인 체육대회



친애하는 카나다에 거주하시는 한국인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대한체육회 카나다 지부에서는 전 한국인동포의 체위향상과, 한인간의 친목증진과, 한민족의 융화단결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2세 들의 체육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족적인 체전을 개최함에 있어 카나다에 거주하시는 개인이나 어떤종류의 단체를 막론하고 적극참여하시어 대회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1981년 5월15일

재 카나다 대한체육회 회장 이 병 권



아 래

(1) 일 · 시 : 1981년 8월15일(토) 오전9시
(2) 장 소 : LAMPORT스타디움, 1151 킹 · 스트릿 · 웨스트, 토론토 M6K 1E3
(416) 537-3441
(3) 참가자격 : ① 카나다에 거주하시는 한국인 동포.
② 한국인으로 구성된 단체(교회 · 동창회 · 한글학교 · 전우회 · YMCA · 실협 · 신용조합 · 동우회 · 각종친목회 · 각종친목회 · 카나다주재 한국인상사 · 각종협회 등)
(4) 참가신청 접수처 : ① 1565 제인 · 스트릿 248-8846 이 병 권
② 631A 블루어 스트릿 535-6004 서울여행사 내
③ 454 블루어 스트릿 536-1692 미도파선물센타 내
(5) 신청마감 : 1981년 7월31일 오후5시까지
(6) 구비서류 : ① 참가신청서 1통
② 종목별 선수명단
③ 선수들의 연령확인서(단체장명의). (각종신청서 용지는 상기주소로 연락하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지방단체는 우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주] 이번 행사의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절대필요합니다. 신청마감 이후에는 등록을 받을 수가 없읍니다. 프로그램과 체육대회 진행 책자 인쇄와 운동장시설문제 때문입니다. 마감일을 특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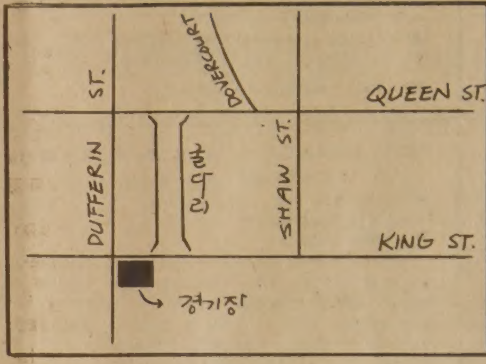
주 최 : 재 카나다 대한체육회

후 원 : 주카나다 한국대사관 · 토론토 총영사관 · 몬트리얼 총영사관 · 한인연합회 · 토론토 한인회 · 토론토 노년회 · 한인 노년회 · 한국일보 토론토지사 · 코리언저널사 · 민중신문사 · 한인실업인협회 · 동우회 · 한인무역인협회 · 한인장학회 · 한인신용조합 · 한인무역협회 · 블루어번영회 · 외환은행 · 한일은행 · KOTRA · 대한항공

협 찬 : 김용순무용연구소 · 한인교향악단 · 호산나합창단 · 카나다태권도협회 · 한국참전용사회

우리 모두 참여하여 교민 단결 과시하자

운동장내 광고판과 프로그램 광고란을 사용 하실분



연 락 처 :

248-8846(이병권)
884-5573(강준남)
533-2361-4(한국일보)

체육대회 운영요강

(1) 유치부경기(주니어및 시니어, 유치원과 1학년까지)

〈경기종목〉
(A) 과자따먹기
(B) 엄마찾아 달리기
(C) 세발자전거 리레이

〈선수자격〉
① 유치원과 1학년까지
② 만4세~만7세 미만의 남녀어린이(8월15일 기준)
③ 나이와 학년이 문제가 될때에는 학년을 기준으로 함

〈팀 구성방법〉
① 한 팀은 10명으로 구성 함
② 여자선수는 최소 3명
③ 1학년 학생은 4명을 초과 할 수 없음
④ 선수가 충분한 단체에서는 종목별로 선수를 교체할 수 있음
단 위의 ① ② ③ 항의 조건을 지킬것

〈경기방법〉
① 경기종목 A, B, C 모두 리레이 식으로 팀 대항전 임
② 참가팀이 6개팀이상이면 예선전을 가짐
③ 세발자전거는 본부측에서 준비함

(2) 유년부경기(2~6학년까지)

〈경기종목〉
(A) 80m 경주
(B) 콩주머니 바구니에 넣기
(C) 줄 다리기

〈선수자격〉
① 2학년~6학년의 남녀 어린이
② 만8세~만12세까지(8월15일 기준)

〈팀 구성방법〉
① 각 팀 10명으로 구성함
② 각 학년 2명씩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저학년 학생이 고학년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여자선수는 최소 3명

〈경기방법〉
① 경기 A는 개인 순위의 종합으로 팀순위를 결정함
② 경기 B와 C는 출전팀 전체를 종합하여 2내지 4개 팀으로 재편성하여 경기할 예정임, 그러나 팀별 성적이나 종합성적에는 각기 자기 점수를 갖고 감
③ 경기 A의 채점방법(이하 다른종목도 이와 흡사함) 각팀선수가 10명이므로 10번을 달리게 되는데
〈예〉 1위=10점, 2위=9점, 3위=8점… 등으로

(3) 중 · 고등부 경기(7~13학년까지)

〈경기종목〉
(A) 기마전
(B) 장대 쓸어뜨리기
(C) 100m 달리기

〈선수자격〉
① 7학년~13학년까지
② 만13세~만18세까지의 남녀학생(8월15일기준)

〈팀 구성방법〉
① 7, 8, 9학년…………5명 } 합10명으로 구성
② 10, 11, 12, 13학년 ………5명 }
④ 여학생은 최소3명

〈경기방법〉
① 경기 A와 B는 전체팀을 종합하여(팀별로) 2내지 4개팀으로 재편성하여 경기할 예정임, 그러나 승, 패의 점수는 각기 자기팀으로 갖고 감
② 경기 C는 개인순위의 종합으로 팀순위를 결정함, 채점방법은 (2)의 ③과 동일함
③ 경기방법의 세칙은 대표자 회의때 발표함.

(4) 일반을 위한 경기

〈경기종목〉
(A) 줄다리기
(B) 자전거 리레이
(C) 다리묶고 달리기

〈팀 구성방법〉
① 종목별 각 팀은 10명으로 구성
② 남 · 녀 공히 5명씩으로 구성해야 함.

〈선수자격〉
① 남 · 녀 연령제한없음(단 타종목에 출전했던 자는 참가 할 수 없음, 마라톤은 제외)

〈경기방법〉
① 경기 A는 전체출전팀을 합하여(팀별로) 2~4개팀으로 재편성하여 경기할 예정임(채점방법은 전과동)
② 경기 B와 C는 개인순위의 종합으로 팀순위 결정함
③ 경기 B의 자전거는 본부측에서 준비함.
④ 경기 B와 C에 출전하는 팀이 6팀이 넘을 때에는 예선전을 가질예정임.

(5) 노년을 위한 경기

〈경기종목〉
(A) 눈가리고 투치고 오기
(B) 국자로 공 나르기
(C) 바늘귀 끼고 달리기

〈선수자격〉
①55세 이상의 할머니 · 할아버지(8월15일 기준)

〈팀 구성방법〉
① 종목별 팀의 구성은 10명으로 함.
② 남 · 녀 공히 5:5의 비율로 구성해야 하지만 불가피 할 경우 7:3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

〈경기방법〉
① 경기 A, B, C 모두 리레이식 팀 대항전 임
② 개인 순위의 종합으로 팀 순위를 결정함.

(6) 축구경기

① 축구협회와 토론토한인회가 공동주최하는 8 · 15경축 도시대항 축구경기 최종 결승전을 유치할 계획임.
② 카나다 서부지역 대표팀(뱅쿠버 · 캘거리 · 에드몬톤) 대 동부지역 대표팀(몬트리얼 · 토론토 · 런던)의 도시대항 전 축구경기
(주) 경기①은 축구협회 · 토론토한인회 주관의 경기이고, 경기②는 본 체육대회 공식 경기임.
(주) 이 경기에서 모국체전에 파견되는 축구선수(토론토를 제외한 타 도시) 최종선발이 있겠음.

(7) 마라톤경기

〈경기종목〉
제1회에 한하여 스타디움안에서 경기할 예정임(8 · 15일 전으로 마라톤 코스가 허락되면(시 교통국에서) 코스 마라톤을 거행할 예정임)
〈규격〉 10,000m 트랙경기(미니 마라톤) 운동장 트랙 약 20바퀴
〈선수자격〉 ① 제한없음 ② 타 종목과 중복 할 수 있음.

채점방법

(1) 종목별 순위결정
①모든 경기는(마라톤 제외) 팀 대항 단체전이며 개인순위의 종합으로 팀순위가 결정된다.
〔예〕 한 팀에서 10명이 출전하여 해당 경기에서 개인별 순위가
1위 : 5점, 2위 : 4점, 3위 : 3점 식으로 계산하여
A팀이 100m 경기에 10명 출전하여
〔예〕 1위 입상 2명……10점 } 19점 식으로 팀의 입상 순위가 결정됨
3위 입상 3명……9 점 }

(2) 종합순위의 결정
① 어느 단체이건 해당종목에 참전하면 10점 취득
② 종목별 경기에서

우 승 하면………50점	4 위 하면………20점	
준우승 〃 ………40〃	5 위 〃 ………10〃	
3 위 〃 ………30〃		씩을 획득한다

③ 마라톤경기에서(단체이름으로 출전했을 경우)

1위=45점	3위=35점	5위=25점	7위=15점	9위=5점	
2〃=40〃	4〃=30〃	6〃=20〃	8〃=10〃	10〃=2〃	획득한다.

〔특전〕 ① 이 대회에서 우승한 자가 차기체전의 성화주자로 위임된다.
② 이 대회의 상위입상자들이 다음해 모국체전 마라톤경기에 출전권을 갖는다.
이상의 점수들을 종합하여 종합(단체)순위를 결정한다.

시상방법

(1)종목별시상
각종목에서 1위……우 승 트로피와 각선수에게 우승메달
2〃……준우승 트로피와 〃 부 상
3〃……3 위 트로피와 〃 부 상
4위에서~10위까지는 출전선수에게 참가상

(2) 마라톤시상
1위……트로피와 상금
2〃…… 〃 상금
3위……트로피와 상금
4위~10위까지 메달과 상품

(3) 종합시상
종 합 1위=우승기 · 우승트로피 · 상금($300예정)
2〃=준우승 트로피 · 상금($200예정)
3〃=3위 트로피 · 상금($100예정)
4〃=트로피
5〃=트로피

[추 서]
1. 본 대회의 어느종목을 막론하고 출전비는 없음.
2. 축구경기를 제외한 모든경기에서는 특별한 유니폼은 필요치 않으나
(A) 가급적이면 흰색 하의(긴바지)에 팀을 표시하는 상의로 통일 하시기 바람.
*백의 민족을 상징
(B) 선수는 누구든 막론하고 운동화를 착용해야 함.
3. 본대회의 상세한 경기진행 세칙은 대표자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임.